

10일 Market Index			
코스피	5301.69	코스닥	1115.20
	(+3.65)		(-12.35)
금리 (국고채 3년)	3.224	환율 (원·달러)	1460.95
	(-0.043)		(+0.65)

정용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트레이더스 만들어”
04



‘1억 성과급’ 산업계, 인재 탈출 막는다

SK하이닉스, 2964% 성과급 연봉 1억 차장, 총급여 2.5억 ‘인력 유출’ 겪은 조선업계 최대 1000% ‘분위기 반전’

성과급 상한 폐지 등 최근 국내 기업들이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서면서 반도체와 조선 등 산업 전반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례없는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실제 SK하이닉스의 경우 의사보다 급여가 많아져 이공계 인재들의 발걸음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하이닉스는 임직원들에게 ‘초과 이익분배금(PS)’을 지급했다. 지급률은 기본급의 2964%, 연봉의 1.5배다. 차장 3~4년 차가 대략 연봉 1억원(세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총급여가 약 2억5000만



설 앞두고 쌀값 폭등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쌀값이 올해 들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최근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쌀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원이 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반도체 판매 호조에 힘입어 43조60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33% 이상 증가한 좋은 성과였다. 성과급은 삼성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 지급률에 따라 연봉의 47%로 책정됐다. 지난

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약 1억 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성과급은 6100만원 안팎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번 성과급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부별 실적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성과급 체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DS부문 영업이익은 16조4000억원으로 전사 실적을 견인했지만 DX부문 영업이익은 1조3000억원에 그쳤다. 사업부별 실적이 상이하지만 성과급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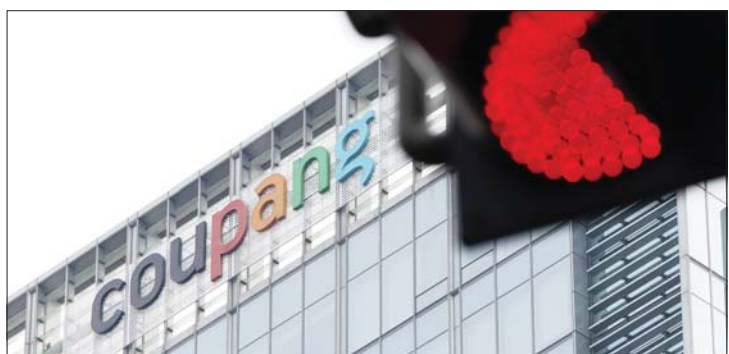
metro®

과기부 “쿠팡 정보 유출규모 3300만건 이상”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내정보 수정·배송지 목록 등
공격자, 비정상적 접근·유출

쿠팡의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개인 이름과 이메일 정보 약 3367만 건, 배송지 관련 정보 약 1억4800만 회가 유출됐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나타났으며, 조사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16일 개인정보 유출 의심 이메일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쿠팡은 자체 조사를 거쳐 같은 달 17일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했고, 19일 4536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실제



쿠팡 전 직원이 일으킨 침해 사고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쿠팡 이용자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유출 규모는 3000만 개 이상의 계정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11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웹과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 분석, 공격 범위와 유출 규모 산정, 인증체계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공격자가 악용한 이용자 인증 구조와 키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했으며, 공격자 PC 저장장치와 현직 개

발자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쿠팡의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이용자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주문 정보 등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기록 분석을 통해 성명·이메일 정보 약 3367만 건, 배송지 관련 정보가 포함된 페이지 약 1억4800만 회 조회, 주문 목록 페이지 약 10만 회 조회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

원회가 별도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 분석 결과, 공격자는 재직 당시 담당했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서명기를 탈취해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했다. 인증 서버는 해당 출입증의 정상 발급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갖추지 못했고, 키 관리 체계 역시 퇴사자 접근 통제와 이력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격자는 이를 활용해 자동화된 웹 크롤링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정보를 수집했다.

조사단은 쿠팡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했다. 비정상 접속 행위에 대한 탐지와 차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접속기록 저장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 규모 산정과 이용자 식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한 서명기를 개발자 PC에 저장하는 등 내부 규정 미준수 사례도 확인됐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5월9일 종료

구윤철 부총리·재경장관
4~6개월 안에 잔금 치뤄야
세입자 살고있어 팔지 못하면
최장 2년 ‘실거주의무’ 유예



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은 최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재확인하고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에 종료되며, 세입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경우엔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줄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구 부총리의 보고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반드시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월9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안에 잔금이나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토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집을 (다주택자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 당장 팔지 못해서 어떡하냐는 것”이라며 “이런 국민들의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기간이 끝나면 (집 주인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릴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세입자가 임대기간을 무한정 늘려서 계약하면 어떡하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첫번째 임대계약에서 남은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임대계약을 5년 하면 어떡할 것인가. 한도를 정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자 구 부총리는 “2년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로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여야 떠나 국익 우선 정치 부탁” /사진 뉴시스
- ▲韓 국가청렴도 182개국 중 31위…계엄 등으로 점수·순위 모두 하락

- ▲강선우, 與의원들에 친전 “1억, 제 정치 생명 걸 가치 없다…숨지 않을 것”
-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불법행위 직접 조사, 대출정보 등 요구 가능”

- ▲국힘 서울시당, 정원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구윤철 “양도세 중과, 세입자 있을 경우 실거주 2년 유예”

李 ‘등록임대주택 제도’ 정조준 “양도세 감면, 점차적 폐지 추진”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수위 높아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특혜 지적
“대상군 한정 등 다양한 의견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공급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적어도 수년이 걸리는 반면 다주택자가 매도에 나서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이어 이번엔 등록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세 감면을 특혜로 지목하고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또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 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 도입됐다.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임대차 안정성과 임차인 보호를 꾀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행 3년 만인 2020년에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예를 들어 1년 등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5월 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최장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구윤철 “대미투자 사전검토체계 가동”

고의 지연 등 상대국 오해 방지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앞서 투자후보 물색 등의 사전 검토를 추진한다. 관세협상 후속조치 이행의 고의 지연 아니냐는 상대국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미국 투자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 제정 과정에 있지만, MOU(양해각서) 합의 이행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특별법안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고, 산업부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성·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국이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이 절차는 입법 전에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인 만큼,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 및 투자 집행은 특별법의 통과 및 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며 “정부도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또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앞줄 왼쪽부터)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위원장보,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황성업 금융투자협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한승수 모간스탠리증권 서울지점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김정호 신영증권 대표,

이찬진 “증권사, 경제 ‘핵심도관’ 역할 지원”

〈금감원장〉

금감원, 증권사 CEO 간담회

모험자본 공급·PF 정상화 등 주된
증권업계, 자본시장 ‘체질전환’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코스피 5000 시대’ 국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내부통제 강화를 증권업계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중소형 증권사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내부통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장과 23개 증권회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새로운 지

평을 열어가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사실일 상기하며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위험 상품을 두고 “과거 불안 전파매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이 감당했던 불신의 골은 매우 깊었다”며 “상품의 전 과정에서 투자자 관점의 수용가능성을 고민하고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해 달라”고 언급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증권사는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자본시장의 자금이 실물경제로 흐르게 하는 핵심 도관이 되어야 한다”며 “금감원도 적극적인 시도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PF 정상화는 업계 공통 과제로 지목됐다. 이 원장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부실여신 잔액은 타 권역 대비 여

전히 높다”며 “부실여신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CEO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금감원은 정리가 지연되거나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타율과 규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시스템 정착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성업 금융투자협회장은 “증시 호황이 단기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의 ‘체질 전환’이 중요하다”며 “좁은 여항 안에서의 제로섬 경쟁을 넘어 K-자본시장의 지평을 넓히고 규모를 키우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증권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생산적 금융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다양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법안지급결제 시스템과 외환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성과급 상한 폐지 등 ‘보상 경쟁’ 본격화

〉1면 ‘1억 성과급 산업계’서 계속

일각에서는 이같은 성과급 지급을 두고 기업별로 인재 확보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성과에 따른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인재 확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 상한 폐지를 통해 반도체 인재 유출을 막고 글로벌 핵심 인재를 확보해 미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신규 채용에서도 이공계 인재 취업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즉 인재 확보와 성과급 확대의 상관관계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수주 절벽으로 장기 불황에 빠지며 대규모 인력 유출사태를 겪은 조선업계도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역대 최

대 실적을 달성해 조선계열사에 기본급 대비 최대 100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HD현대삼호는 성과급 상한인 기본급의 1000%, 나머지 HD현대중공업 등 계열사는 800% 전후다.

이는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인재 모시기에 집중하는 것과 연결된다. 과거 숙련공들의 노하우에 의존했던 조선소 현장을 AI와 로봇 중심의 스마트 야드로 탈바꿈하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요 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기존의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거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투명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과태료 부과 절차 돌입… 법 위반 수사 의뢰도

〉1면 ‘과기부, 쿠팡 정보유출’서 계속

법 위반 사항으로는 침해사고 신고 지연과 자료보전 명령 위반이 확인됐다. 쿠팡은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자료보전 명령 이후에도 일부 접속기록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자료보전 명

령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에 대해 인증체계 검증 강화, 키 관리·통제 체계 정비, 비정상 접속 탐지와 로그 관리 정책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시정 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지급사고 후폭풍...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규제 강화' 가닥

6일 오지급에 전산·장부 허점 부각
금융위·금감원, 2단계법 논의 착수
보유자산 외부감사·정기 점검 검토
스테이블코인·지분규제 논의 재점화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및 입법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지급사고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외부 기관 감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산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책임을 규정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뉴시스

방안을 포함한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일 국내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디지털자산 지급사고 이후 활성화됐다. 직원의 실수로 ‘2000원’이 약 1900억원에 해당하는 ‘2000BTC(비트코인)’로 오지급된 사고

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한화로 약 60조원에 육박한다. 오지급된 디지털자산은 회수됐으나, 거래소의 ‘장부 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부상했다.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위조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개별 디지털자산에는 고유한 값이 부여되며, 서로 거래이력과 변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디지털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은 배경인 만큼,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한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세계적인 ‘제도화’의 기로에 서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 규정, 상장 기준 마련,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 표준에 발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지급사고 이후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에 돌입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이나 자본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법인 거래 허용, 파생상품 취급 기준 마련 등 ‘탈규제’ 중심으로 논의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거래까지 이어진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다. 이번 사고의 검사 결과를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행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지속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도 은행 중심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은행 컨소시움’ 형태의 발행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했는데, 은행은 기존에도 엄격한 내부통제를 적용받았던 만큼 이같은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거래소의 내부통제가 화두가 되면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논의도 다시 부상했다. 앞서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로,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면 지배구조의 급변이 불가피하다.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거래소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오입금 사고는 대주주 지분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특정 거래소가 오지급사고 발생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책임있는 경영진의 판단과 빠른 의사결정 때문”이라며 “거래소 간 시스템 격차는 법과 제도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법을 통해 관련 예방책과 대응 절차를 명문화하면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대산 1호안 발표 임박... 금융·세제 지원 가이드라인 나온다

정부 “이달 말 발표 가능” 언급
롯데·HD현대 대산 합병안 핵심
첫 선례로 산단 재편 기준 정리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1호 자율 구조조정안이 이달 말 발표될 수 있다는 정부 언급이 나오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관심이 첫 산업 재편안에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점이 제시된 만큼 이번 1호 재편안을 계기로 산단별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사업 재편 논의가 비교적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며 이달 말 1호 자율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업계에서는 더 이른 시점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와 세부 조율이 이어지며 일정이 다소 늦춰졌고 현재는 최종 정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재편안이 확정되면 구조조정 이행을 뒷받침할 금융·세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대산산단은 석유화학 업계에서 자율 구조조정 논의가 가장 구체화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공동 사업 재편 계획안을 제출하며 정부의 금

융·세제 지원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기다려 왔다.

양사는 충남 서산 대산 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합병하는 방안을 재편안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산산단 내 에틸렌 설비에서 약 110만톤 규모의 감축 효과를 도출하고 생산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가동률 조정과 고정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적자 폭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합병 이후 법인의 지분은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각각 50%씩 보유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해당 안건이

확정될 경우 대산산단 재편은 석유화학 업계 자율 구조조정의 첫 공식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 1호 재편안이 개별 기업의 손익보다 구조조정 절차와 기준을 정리하는 데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 전반에서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명확한 선례와 기준이 없어 논의가 지연됐다는 점에서 첫 사례의 정리방식이 이후 산단별 재편 논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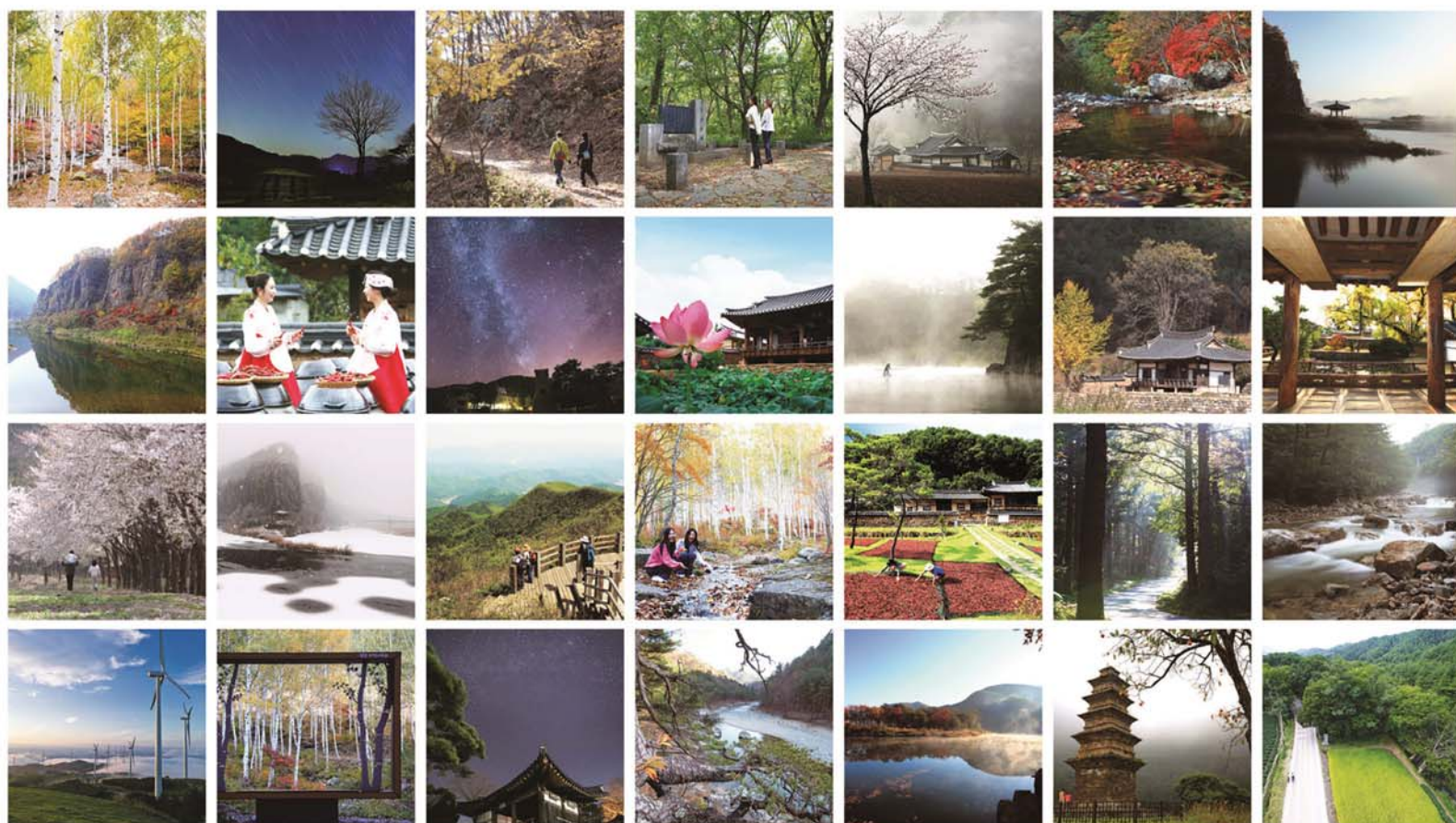
실제로 울산과 여수 산단에서는 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사업 재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산단에서는 SK지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전경.

센트릭과 대한유화, 에스오일 등이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여수산단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설비 통합과 운용 효율화를 둘러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영양군
YEONGYANG-GUN

주말 & 영양

올해 갈 곳은 영양입니다

월·화·수·목·금 ♥ 영양

영양 가있는~ 주말!
영양가 있는~ 생활!



정용진 “안주하지 않고 발전… 지금의 트레이더스 만들어”

〈신세계그룹 회장〉

올해 세번째 현장경영 행보
명절 앞두고 트레이더스 찾아
‘매장안전·품질관리·혁신’ 주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설 명절 연휴를 일주일 앞둔 9일 트레이더스 인천 구월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용진 회장은 명절 대목을 맞아 분주한 현장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고객들이 많이 찾는 명절 기간인 만큼 매장 안전과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회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스타필드마켓 죽전점과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을 찾은 데 이어 올해 세 번째 현장 경영 행보다.

이날 정 회장이 찾은 구월점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전국 최대 규모의 트레이더스 점포다. 트레이더스의 핵심 가치인 ‘알뜰 장보기’에 다양한 테넌트(임대 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레이더스를 돌아보며 차별화된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장)와 로드쇼를 결합해 고객 경험을 강화한 진화형 모델로 꼽힌다. 오픈 이후 역대 점포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으며, 현재 하남점에 이어 전국 매출 2위를 기록하며 인천의 ‘장보기 성지’로 자리

잡았다.

정 회장은 별도로 마련된 노브랜드 매장과 식당가, 신선식품 코너 등을 꼼꼼히 둘러봤다. 명절 선물세트 코너에서는 “트레이더스가 알뜰하게 선물을 장만하

려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며 “믿고 살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제공한다면 우리 점포에 대한 이미지는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오픈런’ 현상을 빚으며 화제가 된 ‘두쫘꾸’ 로드쇼 현장도 살폈다. 9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하루 2000개 물량을 개당 5000원대에 선보이고 있다. 구월점은 개점 당시 대형 요트 로드쇼를 비롯해 캠핑카 로드쇼 등 차별화된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고객 발길을 붙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트레이더스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레이더스는 고물가 시대 ‘가성비’ 수요에 힘입어 2025년 3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1~3분기 누계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27.2% 증가하며 이마트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정 회장은 “대형마트가 호황을 누리던 16년 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유

통 시장 변화를 면밀히 살펴 만든 것이 지금의 트레이더스”라며 “당시에는 생소한 창고형 할인점 모델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독심 있게 혁신을 지속한 결과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오늘 와서 보니 트레이더스가 한층 진화한 것이 느껴진다”면서도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며, 찾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발전시켜야 치열한 유통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거듭 혁신을 주문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트레이더스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말 의정부에 신규 점포를 선보일 계획이다. 2010년 1호점인 용인 구성점을 시작으로 국내 창고형 할인점 시장을 개척한 트레이더스는 지속적인 점포와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효성중공업, 美 전력시장서 7870억 규모 전력기기 수주

단일 프로젝트 기준 역대 최대 규모
美 765kV 시장 주도적 위치 선점
조현준 회장 주도 美 중심 전략 성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효성중공업이 미국 전력시장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수주를 기록했다. 초고압 전력기기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현지 생산 기반을 앞세운 미국 송전망 시장 공략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약 7870억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등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전력기기 기업 가운데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지난해에도 효성중공업은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에서 765kV 초고압변압기와 800kV 초고압차단기 등 전력기기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도 대형 수주를 이어가며 미국 765kV 시장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가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전력사업자들은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로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765kV 송전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765kV 송전망은 기존 345kV나 500kV 대비 송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효성중공업은 현재 미국 송전망에 설치된 765kV 초고압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해 왔으며 2010년대 초부터 해당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765kV 초고압변압기와 800kV 초고압차단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며 대형 송전망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주는 조현준 회장이 주도해 온 미국 중심 전략의 성과로 평가된다. 조 회장은 미국 에너지·전력 업계 최고경영진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효성중공업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왔다.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지 생산 거점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선제적 투자를 이어왔다.

조 회장은 2020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 인수를 결정한 이후 증설을 포함해 총 3억달러(약 4400억원)를 투자했다. 멤피스 공장은 현지 공급망 주도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증설이 완료되면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조 회장은 “AI 및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는 이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산업이 됐다”며 “효성중공업 멤피스 공장과 초고압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전력망 안정화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성중공업의 실적도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매출 5조9685억원, 영업이익 7470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수주잔고는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4% 증가했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202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창원공장에 HVDC 변압기 전용 공장을 구축 중이며 시스템 설계부터 기자재 생산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의 HVDC 토털 솔루션 제공사로도 약한다는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CJ제일제당, 사업·재무·조직 전면혁신 선언

윤석환 대표 “파괴적 변화·혁신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나야”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사진)는 10일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라며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파괴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윤 대표는 이날 전 임직원에게 보낸 ‘우리에게 적당한 내일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CEO 메시지를 통해 “4년간 이어진 성장 정체 끝에 지난해 순이익 적자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이는 일회성 악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조직에 대한 생존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취임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낸 배경에는 단순한 실적 부진을 넘어, 사업 모델과 조직 운영, 알하는



방식 전반을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작은 변화로는 이과고를 넘을 수 없다”며 ▲사업구조 최적화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선 ▲조직문화 재건 등 전사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구조와 관련해 그는 “그동안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라는 이름 아래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까지 안고 있었다”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승산이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푸드 해외 신영토 확장을 위한 글로벌 전략 제품(GSP) 등과 현금 창출력이 높은 사업에는 적극 투자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금 흐름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

다”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예산과 ‘납들도 하나씩’ 식 마케팅 비용, 실효성이 낮은 연구개발(R&D) 투자까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비핵심 자산을 적극 유동화해 성장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냈다. 윤 대표는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CEO’보다 회사를 살리는 ‘이기는 CEO’가 되겠다”며 “느슨한 문화를 견여내고 생존과 본질에 집중하는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선택지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현재의 불편함이 미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대표이사들이 변화가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각 사업과 조직별로 구체적인 혁신 실행 방안 마련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T이사회, 사외이사 3인 교체 결정

이사회 운영 연속성·투명성 핵심

KT이사회가 결국 사외이사 3인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KT 이사회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ESG, 미래기술, 경영 분야의 사외이사 후보 3인을 확정해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KT 이사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추천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투명성’이다. ESG 분야에는 윤종수 현 KT ESG위원장이 재추천되었으며, 미래기술 분야에는 김영한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가, 경영 분야에는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이사 이름이 올랐다.

반면 회계 분야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식으로 남겨둔 뒤 내년 주총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이로써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 중 윤종수 이사만 생존했으며, 안영균·최양희 이사는 물러나게 됐다.

이사회는 기존의 대규모 동시 교체 방식인 ‘집중형 구조’를 탈피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교체하는 ‘분산형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경영진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외적인 불확실성 해소에도 공을 들였다. 이사회는 주요 보직자 인사 규정이 정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의 지적을 수용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해 사외이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이승훈 사외이사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제3의 독립 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김서현 기자 seoh@

*본 광고는 AI를 활용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데, 갑자기 정전이 오면?”
“이 많은 차들을 움직일 에너지는 영원할까?”
“우리 아이들이 쓸 에너지는 남아있을까?”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앞으로 더 복잡해지겠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모두의 평범한 삶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국힘, 대구시장 출마 러시…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 예고

지방선거 돈보기

⑤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전통 보수 지지자 많아 희망자 쏠려
행정통합 급물살에 선거전략 고심
후보 없는 민주당, 인물 찾기 난항

TK(대구·경북)는고(故)박정희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종갓집’·‘보수의 심장’으로 불린다. 보수가 아무리 어려워도 TK만은 보수를 따듯하게 품어주는 등지 같은 곳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충청 등 중도층 유권자가 많은 곳에서 우(友)경화된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TK에선 보수 지지자들의 불며 현역 의원과 당 내 중진들의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TK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대구·경북특별시 통합시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나오면서, 후보자들 간 정치적 쟁점과 선거 전략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명성 경쟁이나, 반성·혁신 앞세우나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장 선거와 경북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전통 보수 지



주호영 의원



윤재옥 의원



추경호 의원



최은석 의원



유영하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자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임에도 ‘보수의 적통’을 주장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개정특별위가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안한 지방선거 당심 70%, 민심 30%의 경선 규칙 반영 비율을 수용하지 않고 당심 50%, 민심 5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반성과 혁신’에 초점을 두는 후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시장 한 명만 선출하게 돼, 보수 진영 내부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행정통합 안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구시장 선거 현역 의원 출마만 5명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시장 선거는 현역 국회의원 5명과 지역 내 중진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구 현역 의원 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출마 선언을 한 셈이다. 주호영(6선·대구 수성구갑), 윤재옥(4선·대구 달서구을), 추경호(3선·대구 달성군), 최은석(초선·대구 동구군 위군갑), 유영하(초선·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6선의 주호영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동상 앞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주 의원은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인 윤여계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의원은 대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지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지낸 최은석 의원도 출마 선언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원외에선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대구시장 도전을 시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판기념회에서 직접적으로 출마 계획을 밝히진 않았으나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디엔에이(DNA)를 만들어준 곳”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극우 성향의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와 고성국 정치평론가가 참석한 바 있다.

경선 전부터 국민의힘 내 대구시장 선거가 뜨거운 가운데, 반대로 TK가 열세 지역인 민주당은 후보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홍의락 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3선 도전 유력

경북지사는 현직인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에 관심이 모인다. 혈액암 투병 중에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 지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서 3선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지사 외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9월 퇴임하고 경북지사에 본격 도전했다.

장동혁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경북지사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대구·경북의 3선 의원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요구하며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표적인 친박(박근혜)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공식 출마선언을 한 주자는 없다. 안동 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 오중기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조혁당 합당, 명분 있으나 추진 어려워”

필요성 공감, 시기·방식에 문제 제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우려 표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당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 합당 건을 논의한 가운데, 현 상황에서 합당 추진은 어렵겠다는 데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여 사실상 양당 합당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의) 발언을 종합하면, 첫째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우영, 이정현 의원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전했다.

또한 “두 번째,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지만 추진이 어

렵다는 것과,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해 최고위원회의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며 “의총 결과를 반영해서 최고위원들과 잘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 20여명은 의총에서 합당과 관련해 가감없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의 필요성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으나, 시기와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형태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두 분 정도는 선거 후 합당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의 지점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대체로 합당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발언이 의총에서 주를 이뤘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지금의 입법 속도로 국제변화 대처 못해”

李, 국회에 조속 처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의 국회 처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주요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쳐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의 우선정치를 부탁드린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박태홍 기자

김정관 “대미투자법 처리되면 관세 인하”

(산업부 장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여야가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통상협상의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만 국회에서 처리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이 없던 일이 되고 미국 측의 추가 관세 압박의 여지는 없는지 따져 물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에게 이번에 한 것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 메시지를 통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실제로 마지막엔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관세 25%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세에 게재하는 방식이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압박인 것은 분명하고

저희로서도 부담이 되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동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최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3월에 통과되면 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의 근거를 말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을 지연하고 있어서 (관세 재인상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하고 만났었다”며 “지금도 계속 대화 중에 있는데, 러트닉 장관도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김 총리에게 한미 간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인식이 다르지 않냐고 질의했다. 김 총리는 “관세 인상 압박이 다시 제기된 직접적 이유에 대한 판단은 입법 지연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투자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어떤 경우엔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혹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강하게 갖는 경우도 있어서 종합된 결론은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기존의 판단을 바꿀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자본력 갖춘 제4인행 나올까… 금융위, 신규인가 재추진 검토

금융위, 소소 등 4개 컨소시엄
제4인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
신협중앙회, 'CU뱅' 설립 의지
소호은행, 소상공인 금융 추진

금융위원회가 케이·카카오·토스뱅크의 뒤를 이을 제4인터넷은행의 신규인가 재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에 맞춘 제4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정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절차 재추진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인터넷은행 필요성과 관련해 “필요성과 여건의 성숙 여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한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 소소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에 대해 모두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4개 컨소시엄은 모두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취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대주주 불투명 문제가 제기됐고, 포도뱅크와 AMZ 뱅크도 대주주

불투명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정책동력이 약해진 영향도 컸다. 제4인행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전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와 탄핵, 정권교체 변수가 겹치면서 제4인행 과제는 뒤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생산적금융, 포용금융의 취지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 절차가 또 다시 재가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현재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신협 공동 출자 방식의 인터넷은행 ‘가칭 CU뱅’ 설립을 공약했다. 비대면 금융상품과 AI(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구상이다.

소소뱅크도 결제 자산 인프라기업 NHN KCP를 주요 주주로 품으며 또 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인터넷은행 설립을 목표로 전국 소상공인연합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이다. 앞선 심사에서 약점으로 지적된 대주

주 안정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소호은행도 인터넷은행에 재도전할 의지를 밝힌 상태다. 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해 설립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이다.

당시 김동호 KCD대표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새 정부 임기 내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긴다면 한국소호은행일 것”이라고 밝혔다. KCD는 스몰 라이선스 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포용금융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제4인터넷은행 논의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과거 심사에서 드러난 자본력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난 3일 철도운영사 통합을 위한 고속열차 교차 시운전이 실시됐다. /뉴시스

수서역·서울역에서 KTX·SRT 교차운행

국토부, 25일부터 시범사업

앞으로 수서역에서도 KTX를, 서울역에서도 SRT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은 오는 25일 고속열차 통합운행을 위한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KTX(955석)와 SRT(410석)가 각각 하루 1회씩 왕복 운행하며 KTX는 부산역~수서역행이, SRT는 부산역~서울역행이 마련된다.

승차권 예매는 오는 11일 개시한다. 코레일과 에스알 각 기관의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역사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은 현재 출발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 수서발 KTX는 평균 10% 저렴(SRT 운임과 동일)하게,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 다만 시범 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 등은 적립되지 않는다. 향후 이용객의 견수렴을 거쳐 통합 운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신한은행 서울 25개 전자치구와 공공배달앱 협약 완료

신한은행은 10일 노원구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서울시 25개 전자치구와 공공배달앱 협약을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2022년 1월 광진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와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공공배달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맹거요는 공공배달앱 협약을 바탕으로 자치구별로 맹거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서울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발행하고 있다. 전용 상품권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맹거요는 전용 상품권과 연계해 고객 혜택도 강화했다. 신한은행은 전용 상품권으로 2만5000원 이상 주문 고객에게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서울시는 전용 상품권과 자치구 사랑상품권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주문금액의 5%를 맹거요 전용 상품권으로 페이백해 이용 편의와 혜택을 함께 높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및 전 자치구와 협업을 바탕으로 공공배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 관점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행사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 여섯번째)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 여섯번째),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 및 그룹 임직원들이 포즈를 취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 임직원 ‘설맞이 상생 캠페인’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그룹 임직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희망을 나누는 설맞이 상생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희망을 나누는 설맞이 상생 캠페인’은 그룹 임직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 상생 봉사활동이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과 임직원들은 이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한파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 등을 위한 설 물품을 구매하고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며 민생 현

장의 목소리를 직접 살폈다.

임직원들은 1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한 방한용품, 생필품, 식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키트를 제작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2000여 명에게 전달하며 신한금융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설 명절은 한 해의 시작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신한금융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중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는 상생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인천 가좌동점에 ‘KB시니어 행복 라운지’

KB국민은행, 안마의자 등 갖춰

KB국민은행은 인천 서구 가좌동점에 라운지 형태의 특화 점포인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KB시니어 행복 라운지’는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니어 고객 맞춤형 공간이다.

라운지에선 전담 직원이 빠른 창구를 통해 입출금, 통장 재발행, 연금 수령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안마의자, 혈압 측정기, 커피 머신 등을 갖춘 공간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나 홀로 웃은 현대카드 카드업계 ‘톱3’ 꺾었다

지난해 주요 카드사 실적 부진 속
순익 3505억 전년비 10.7% 증가
삼성·신한 이어 기존 4위→3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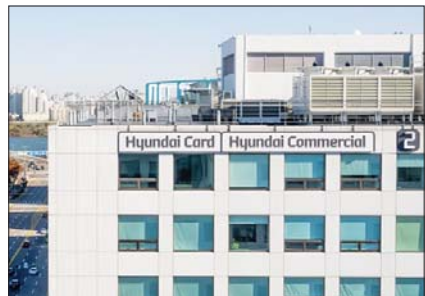
현대카드가 나 홀로 두 자릿수 순익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카드업계 순위에서 각각 변동을 일으켰다. 업계 4위에서 3위로 올라서며 ‘톱3’ 안착에 성공한 것이다. 반면, 업계 전반은 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감소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신한·현대·KB·우리·하나 등 주요 카드사가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현대카드 순익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성장세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35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164억원) 대비 약 340억원(10.7%)량 늘어난 수치다. 영업수익은 4조78억원으로 1.1% 증가했으며, 영업비용은 3조5685억원으로 0.3% 소폭 올랐다.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영업이익은 4394억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순이익뿐만 아니라 외형 지표 성장세도 안정적이다. 지난 2022년 1104만 명이었던 회원 수는 2023년 1173만 명, 2024년 1225만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267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신용판매(신판) 취급액은 177조 원으로 전년 대비 6.2% 늘었으며, 금융자산은 8조원으로 같은 기간 3.7% 확대됐다.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현대카드는 순이익 기준 업계 3위에 처음으로 올라섰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 기준 업계 순익 순위는 삼성카드(6459억원), 신한카드(4767억원), 현대카드(3503억원) 순이다. 기존 4위였던 현대카드가 3위권에 진입하면서 상위



현대카드 사옥 전경. /현대카드

권 순위에서 변화가 생겼다.

이 같은 성장에는 상품 라인업 강화가 주효했다. 현대카드는 앞서 라이프스타일 카드 ‘현대카드 알파벳카드’를 11년 만에 재출시하는가 하면, 일상 소비 영역을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한 ‘현대카드Z 에브리데이(everyday)’ 카드를 선보인 바 있다.

두 카드 모두 마트, 백화점, 음식점 등 일상생활 혜택에 집중한 실속형 상품으로, 1만~2만 원대의 합리적인 연회비를 책정해 고객의 이용 문턱을 낮췄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상품 라인업 강화를 통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비롯해 국내 및 해외 신용판매, 회원 수, 평균 이용금액 등 전 영역에 걸쳐 고른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업계 전반은 순이익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계 선두권 카드사들도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 6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며, 신한카드 역시 당기순이익 4767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16.7% 줄었다.

중위권 카드사들의 경우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가 순이익 3302억원, 2177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보다 18%, 1.8%씩 감소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디스플레이업계, LCD사업 축소… OLED 체질전환 속도

LGD 차량용 LCD 사업 양도
보급형 OLED 등 제품 다각화

삼성D 폴더블 패널 투자 검토
백플레인 관련 공정 업그레이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가 액정표시장치(LCD) 사업을 축소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급형 OLED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는 동시에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도 드라이브를 걸며 새판을 짜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9일 중국 난징에 위치한 차량용 LCD 디스플레이 모듈 사업을 국내 협력사인 탑토타솔루션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양도에정일자는 오는 7월 30일이며 양도가액은 1041억원이다.

LG디스플레이 난징 법인은 IT와 차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LG디스플레이

량용 LCD 모듈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계약에 따라 차량용 LCD 모듈 사업만 양도하게 됐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던 차량용 LCD 모듈 사업은 양도 후 외부 생산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양도를 통해 고정비를 줄이고 고객과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전사 운영 효

율성을 높이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양도계약 역시 LCD 사업 정리를 통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사업 재편과 함께 보급형 OLED를 출시하는 등 제품 포트

폴리오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주요 TV 고객사에 'OLED SE(스페셜 에디션)'를 납품하기로 확정했다. 55형 등 주요 사이즈는 이미 양산을 시작했고 고객사 제품 출시 일정에 맞춰 2분기까지 전 라인업을 양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OLED SE'는 공급 가격을 액정표시장치(LCD) 수준으로 낮춘 보급형이다. 기존 OLED 대비 30~40% 저렴해 중국 업체들이 주력하는 미니 LED와 비슷하다. 대신 패널 휘도(밝기)를 2000니트에서 1000니트로 낮추고 빛 반사를 줄여 시인성을 높이는 편광판을 제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OLED 패널 생산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폴더블 제품 생산을 위한 OLED 패널 생산 능력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뿐만 아니라 차세대 모델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폴더블 기기에 대한 애플의 높은 수요 기대치를 반영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A4 공장에 폴더블 OLED 생산 설비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막 트랜지스터(TFT) 라인을 포함한 백플레인 관련 공정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오는 6월부터 애플 폴더블 OLED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LCD 사업 축소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OLED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보급형 제품까지 라인업을 넓히는 것은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V4' 등 첨단 의료기기 기술력 뽐내

WHX 두바이 2026

에보Q10·R20 등 신제품 소개
심포지엄 통해 임상사례 공유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이하 삼성)이 중동 시장에서 의료기기 경쟁력을 선보인다.

삼성은 오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의료 전시회 'WHX 두바이 2026'에 참가한다거 10일 밝혔다.

삼성은 이번 전시에서 초음파 신제품 'V4'와 '에보Q10(EVO Q10)'을 글로벌 런칭하고 영상의학과 전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R20'을 중동 지역에 처음 소개한다.

인텔의 최신 NPU 기반 신제품 V4는 회로 설계와 기구 구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최적화해 완성도를 높인 차세대 장비다. 전력 효율 극대화 설계를 적용해 기존 대비 전력 소모량을 35% 줄였으며, 고해상도를 유지하며 다양한 AI 기능을 탑재했다.

V4의 휴대성을 더욱 높여 개발된 '에보Q10(EVO Q10)'은 고성능 중인 현장 진단(PoC) 시장을 겨냥한 노트북형 제품이다. 고해상도·다양한 AI 기능, 컴팩트한 크기와 무게 구현을 통해 사용성과



삼성메디슨 WHX 2026 전시 부스.

/삼성메디슨

휴대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응급·외과·이동형 진료 환경에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구현한다.

특히 에보Q10은 진료실 외 진단현장에서의 활용을 고려, 가볍고 견고한 하우징 설계로 내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터치스크린과 조작부의 돌출 요소 최소화 및 IP22 등급 방수 인증 획득을 통해 소독과 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방사선량은 낮추고 검진 효율은 높인 'GC85 Vision+'와 촬영 영역을 실시간으로 검증해주는 '애너토미 클리핑 체크(Anatomy Clipping Check)' 기능이 추가된 'GM85'를 통해 엑스레이 기

술 혁신도 선보인다. 영유아의 작은 기관 등 미세 구조 표현이 가능한 고해상도·고성능에 1.5Kg로 경량화한 글래스 프리 디텍터인 'F3025-AW'도 함께 공개한다.

행사 3일 차에는 '삼성 AI 심포지엄'이 열린다.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방사선과 부학장 비토 칸티사니 교수가 간·복부 진단에서의 삼성 AI 진단 보조 기능 임상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세계적인 산부인과 전문의 히삼 미르하니 교수는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헤라 Z20(HERA Z20)'을 활용한 라이브 스캔을 시연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LG전자, 재개발정비지역 가전 구독사업

GS건설 협력… 첫 목표 성수지구

LG전자가 GS건설과 '재개발정비사업 가전 구독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G전자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GS건설 본사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GS건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조와 적극 협력 관계 구축을 약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 간 공동 협력의 첫 목표로 삼은 재개발 현장은 성수전락정비지구 1지구(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72-10 일대)로, 2009년 서울 전락정비구역으로 선정된 5개 지역 중 한 곳이며 강북권 최대 정비사업 현장으로 꼽힌다.

LG전자는 GS건설이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LG전자의 코어테크가 담긴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제품과 차별화된 구독 서비스 제공 등으

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GS건설이 성수전락정비지구 1지구 시공사로 최종 선정될 경우, 해당 지구 입주자들은 다른 주거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혜택과 조건의 가전 구독 서비스로 LG 빌트인 가전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HVAC(냉난방공조) 명가 LG전자의 코어테크가 담긴 프리미엄 환기제품이 적용돼 입주자들이 실내 공기질을 보다 손쉽고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호세 무노스 “韓 시장 5년간 125조 투자”

〈현대차 사장〉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 대폭 확대

호세 무노스 현대자동차 사장(사진)이 중국과 인도 등 핵심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화 전략과 조직 실행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노스 사장은 10일 임직원들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지역과 조직 간 긴밀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시장 특성에 맞춘 전략적 대응과 실행력이 중장기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와 규제, 지정학적 리스크,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는 도전적인 한 해였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 186조2545억원, 영업이익 11조4679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률 6.2%를 달성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약 414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지역별로는 전 권역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 국내에서는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 9 출시 효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갔고, 북미에서는 5년 연속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유럽은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전동화 전환을 가속했으며, 인도

시장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75% 이상 증가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 맞춰 사업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무노스 사장은 올해 현대차 목표로 글로벌 판매 416만 대, 매출 성장률 1~2%, 영업이익률 6.3~7.3% 달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330만 대를 포함해 글로벌 판매 555만 대, 영업이익률 8~9%를 달성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을 18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놔다.

무노스 사장은 “한국에서는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125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북미에서는 한화 35조원(260억달러)을 투자할 예정이며 인도 생산 역량 확대와 중국 사업 재편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에어로-KAI, 항공무장 국산화 추진

사업협력 MOU… 톱티어 기술력 확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항공기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항공무장 국산화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에 나선다. 항공기 플랫폼과 무장을 결합한 패키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마케팅도 추진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제3회 세계방산전시회(WDS)를 계기로 KAI와 항공무장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KF-

21, FA-50 항공기 플랫폼에 항공무장을 체계통합하기 위한 협력 ▲항공기 및 항공무장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 등에 합의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하는 항공무장 개발 사업에도 안정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공대공, 공대지, 지대공 등 다양한 미사일 개발과제를 수행해 온 당사의 역량과 KAI의 전투기 체계종합 역량의 시너지로 국산 항공무장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2題



10일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앞에서 열린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임직원 및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전국 주요 소상공인 단체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반대했다.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공연

개성공단 가동중단 10년 ‘생존대책·방북승인’ 촉구

개성공단기업협, 도라산 CIQ서 기자회견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돼”
미국에 “책임있는 역할 해달라” 호소

개성공단기업인들이 전면 중단 10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에는 생존 대책 마련을, 북측 당국에는 설비 점검 등을 위한 방북 승인을 각각 요청했다. 미국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오전 개성공단과 가장 가까운 남측 지역인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성공단 기업인과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호소문에서 “개성공단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남북 경제협력의 최전선이었으며 사명감과 함께 ‘작은 통일’을 직접 경험했다는 자부심을 안겨준 공간이었다”면서 “우리는 개성공단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실질적인 생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

소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강제 폐쇄 직후 입주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총 8173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 확인한 피해액은 7087억원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이 가운데 1300억원이 적은 총 5787억원만 실제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식 확인액의 90%(임대자산은 100%)까지만 최소 813억 원을 정부가 피해 기업들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또 “우리는 개성공단에 가고 싶다”면서 “북측 당국은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 승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에도 “기업인들의 자산 보호를 위한 방북 승인이 진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조경주 회장은 “21세기 들어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 간 통신선 단절과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 기업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공단 폐쇄 후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이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공단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토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일하는사람 기본법 철회 5인미만 근기법 확대 반대”

소상공인聯·외식업중앙회 등 기자회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 출범
“사회보험료 폭탄·연쇄파산 우려”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행동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소상공인들에게 사회보험료 폭탄과 연쇄파산을 강요하는 ‘사형선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치영 소상공인회장(사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돼 특고·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공연 추정 상 사업주는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상공인 연평균 영업이익(2500만원)의 20%를 넘어서는 액수로,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릴 경우 많은

소상공인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게 소공연의 분석이다.

송 회장은 “PC방, 편의점 식당 등 초단기 알바가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 업종에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면 끊임 없는 분쟁과 수당 청구 소송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등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호밍’ 기사들에 대해 누가 고용주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만 일방적인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이크업과 인테리어 업종의 경우 예약제와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업종 특성상 ‘지휘 감독’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를 근로자로 간주하는 순간 공정 관리와 안전 교육조차 임금 체불과 분쟁의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강력 반대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업계는 “가족 경영으로 간신히 버티는 영세 사업장에 연장·야간 수당 등 복잡한 규제를 가중하는 것은 경영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충청권 기술 기반

中企벤처 성장 지원

하나은행과 200억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이 하나은행과 손잡고 충청권에 있는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추가 지원한다. 기보는 하나은행과 지난 9일 기보 충청지역본부에서 ‘충청권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용 상향(85%→100%, 3년간) 등 다양한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대전·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 위치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外人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접수 받는다

중기부, 민간·신산업 외국인 인재 추천
민간기업·신산업 종사자 수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부터 민간기업 및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우수인재 대상 수시 특별귀화 추천 접수를 시작한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해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다. 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 권위 수상, 연구실적 등이 인정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중기부는 민간기업 분야 특별귀화 추천기관으로 힘을 보탠다.

중기부 추천 분야는 ▲국내·외 기업 및 외투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지식재산권 보유자 등 총 4개다. 분야별 특별

귀화 기본요건을 충족해야만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자의 자질 및 역량, 경력의 우수성, 소속기업 내 역할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추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기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법무부에 특별귀화 신청 후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귀화 허가를 받게 된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검증된 글로벌 인재들이 특별귀화를 통해 단순한 체류를 넘어 ‘한국 경제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유망 스타트업 및 혁신적인 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추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분야 글로벌 인재는 K-스타트업 포털 또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中企 10곳 중 3곳, 작년 설보다 자금사정 악화

중기중앙회, 819곳 대상 설문조사
올해 설 필요자금 평균 2억270만원
납품대금 조기회수 등으로 조달 계획

작년 설에 비해 자금사정이 나빠졌다는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더 많았다.

중소기업들이 올해 설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27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평균 263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8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1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29.8%로 ‘원활하다’(19.9%)보다 많았다. ‘보통’이란 답변은 50.3%였다.

자금사정 곤란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매출) 부진’이 82.8%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원·부자재 가격 상승’(44.3%), ‘인건비 상승’(32.4%) 등이 뒤

를 이었다.

작년 설 대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에 대해서는 ▲보통(67.5%) ▲양호(17.8%) ▲곤란(14.7%) 순으로 많았다.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유무에 대해선 ‘없다’가 86.3%로 ‘있다’(13.7%)보다 높았다. 은행에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63.4%)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 ▲대출 한도 부족(38.4%) ▲담보 요구 강화(19.6%) ▲신용대출 축소(17.9%) 등이 뒤를 이었다. 부족한 설 자금 확보계획(〃)에 대해선 ‘납품대금 조기회수’(58.0%), ‘금융기관 차입’(42.5%), ‘결제 연기’(32.9%) 순으로 응답했다. ‘대책없음’도 18.4%에 달했다.

올해 설 상여금(현금)을 주겠다는 곳은 46.8%로 ‘미지급’(40.2%)보다 다소 많았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곳은 13%였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월 지급시 기본급의 평균 50%, 정액 지급시 1인당 평균 5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AI에 네트워크 운영 전반 맡긴다 고객경험, 품질 넘어 ‘신뢰’ 확장

LG U+ ‘자율 운영 네트워크’

핵심 네트워크 플랫폼 ‘에이아이온’
24시간 이상징후 즉시 감지 후 해결
트래픽 급증 사전 예측해 기지국 제어
디지털 트윈 기술로 품질 최적화

LG유플러스가 통신 네트워크 운영의 주도권을 사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옮기는 ‘자율화’ 단계에 들어섰다. 장애 대응에서부터 트래픽 관리, 국사 운영까지 전 과정을 AI가 스스로 판단·조치하는 체계를 앞세워,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을 넘어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1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이 네트워크 운영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조치하는 ‘자율 운영 네트워크’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율 운영 네트워크는 장애 대응, 트래픽 제어, 무선망 최적화, 국사 관리 등 네트워크 운영 전반을 AI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기존 ‘자동화·지능화’ 단계를 넘어, AI가 의사결정 주체로 기능하는 ‘자율화’ 단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핵심 플랫폼은 자율 운영 네트워크 플랫폼 ‘에이아이온(AION)’이다. 에이아이온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장애를 예측하고 품질 저하 요인을 사전에 제거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이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한다. 실제 상용망 적용 결과 모바일 품질 불만 접수는 70%, IPTV 등 홈 서비스 관련 불만은 56% 감소했다.

장애 대응에는 특화된 AI 에이전트가 24시간 감시 체계를 담당한다. 기존에는 관제 요원이 알람 확인 후 원인 분석과 현장 출동 여부를 판단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해 영향 범위와 조치 방안을 자동으로 도출한다. 소프트웨어 오류는 원격 복구하고, 물리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을 요청해 복구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트래픽 관리 효율도 개선됐다. 대규

모 행사나 스포츠 경기처럼 트래픽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AI 에이전트가 사전 예측을 통해 기지국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해 엔지니어가 일상적인 언어로 의도를 입력하면 AI가 파라미터 조정과 기지국 제어를 수행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국사 관리와 무선 품질 최적화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다. 실제 국사 환경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 전원 상태와 온도도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고, 이상 발생 시 AI가 즉각 대응한다. LG AI연구원의 거대언어모델 ‘엑사원’을 적용한 자율주행 로봇 ‘유봇(U-BOT)’은 국사 내부를 순찰하며 장비 상태를 점검해 원격 관리 효율과 작업 안전성을 높였다.

LG유플러스는 TM포럼의 네트워크 자동화 성숙도 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최초로 최고 수준에 근접한 레벨 3.8을 획득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3월 ‘MWC 2026’에서 자율 운영 네트워크 기술을 공개하고, 2028년까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완전 자율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자율 운영 네트워크로의 진화를 통해 고객 경험의 기준을 기존의 ‘품질’에서 ‘신뢰’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네트워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지난해 영업이익 2조4691억… 205% ↑

당기순이익 1.8조… 340.4% 늘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부동산 견인

KT가 실적으로 해킹 논란을 눌렀다.

10일 KT는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 28조2442억 원, 영업이익 2조469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9%, 205.0%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340.4% 불어난 1조8368억원을 기록했다.

무선 사업은 중저가 요금제 확대와 가입자 기반 성장에 따라 서비스 매출이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2025년 말 기준 5G 가입자 비중은 전체 핸드셋 가입자의 81.8%를 차지했다. 유선 사업 매출은 초고속인터넷과 미디어 사업 성장으로 0.8% 늘었고 기업서비스 매출은 저수익 사업 조정에도 CT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AI·IT 수요 확대에 힘입어 1.3% 증가했다.

KT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 ‘민:음K’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한국 특화 AI 언어 모델 ‘SOTA K’ 보안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SPC를 출시하며 AX 사업 대응 역량을 확대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데이터·AI 사업 기회도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다.

KT그룹 차원에서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부동산 사업이 실적을 견인했다. KT클라우드는 데이터센터와 AI·클라우드 사업 성장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27.4% 증가했으며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했다. KT에스테이트는 복합개발과 임대 사업 확대 호텔 부문 개선 개발사업 진행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콘텐츠 계열사는 광고 시장 둔화와 일부 자회사 매각 영향에도 주요 콘텐츠 제작·플랫폼을 중심으로 전년 수준의 매출을 유지했다. 케이뱅크는 신규 고객 유입과 여신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상장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KT는 침해사고를 계기로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보안 조직과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를 통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체계 확대와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주환원과 관련해 KT는 2025년 결산 기준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주당 배당금은 24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SKB, Btv 고객 참여형 큐레이션 행사

‘취향이 머니’ 순금 증정 프로모션

SK브로드밴드는 B tv 고객이 직접 추천한 콘텐츠를 혜택으로 돌려주는 ‘취향이 머니’ 순금 증정 프로모션을 1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취향이 머니’는 Btv의 VOD 통합 월정액 서비스인 ‘Btv+’에서 고객이 좋아하는 영화나 프로그램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다른 이용자가 이를 시청하면 추천자에게 B캐시가 적립되는 고객 참여형 큐레이션 서비스다. IPTV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방식이다.

플레이리스트가 많이 시청될수록 적립되는 B캐시도 늘어나는 구조로, 현재까지 약 3000명의 고객이 참여했으며 누적 적립 캐시는 1500만에 이른다. 개인의 콘텐츠 추천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는 점이 특징이다.

고객의 일상과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추천 목록도 눈에 띈다. ‘육아 후 휴식 시간에 보기 좋은 콘텐츠’, ‘취업 준



SK브로드밴드가 B tv 고객들의 추천작을 혜택으로 돌려주는 ‘취향이 머니’ 순금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SKB

비생을 위한 응원 콘텐츠’ 등 공감형 플레이리스트가 공유되며 이용자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설 연휴를 맞아 Btv와 모바일 Btv에서 QR코드를 통해 7편 이상의 플레이리스트를 제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12지신 순금 코인 세트’를 증정하는 사은행사를 마련했다. 월간 조회수 상위 고객에게는 최대 50만 B캐시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엔씨소프트, 머빈 리 콰이 퍼블리싱 총괄 영입

북미 법인 엔씨아메리카 운영 담당 MMORPG 글로벌 퍼블리싱 전문가

(주)엔씨소프트가 엔씨아메리카 퍼블리싱 및 라이브서비스 운영 총괄로 머빈 리 콰이(사진)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머빈 리 콰이는 엔씨아메리카에서 북미와 유럽에 서비스 중인 게임의 서비스와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엔씨소프트는 2026년 ‘아이온2’, ‘신더시티’ 등



MMORPG(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 및 슈팅 장르의 신작 게임들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머빈 리 콰이는 23년간 MMORPG의 글로벌 퍼블리싱을 담당해온 전문가다. 아마존게임즈, 소니 온라인엔터테인먼트, 트라이온월드 등에서 글로벌 대형 타이틀의 퍼블리싱과

라이브 서비스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게임즈에서 ‘쓰론 앤 리버티’를 포함한 한국 PC·콘솔 MMORPG의 글로벌 론칭과 서비스를 총괄했다. 한국과 서구권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인사이트를 갖추고 있다.

머브 리 콰이는 “아이온2를 시작으로 엔씨의 주요 게임들을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과기부, 생활·산업 주파수 규제개선 시행

와이파이 실내출력 1W로 상향 블루투스 정밀위치 추적 등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파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관련 기준을 담은 2개 고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대상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와 ‘신

호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무선 기술을 중심으로 총 4가지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6GHz 일부 대역(5925~6425MHz)의 와이파이 실내 출력이 기존 0.5W에서 1W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실내 통신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대용량·저지연 통신 환경이 개선돼 AI 서비스와 확장현실(XR) 콘텐츠 이용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블루투스 기반 정밀 위치 추적 서비

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GPS나 단순 블루투스 신호를 활용해 실내 위치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나,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 형식을 추가해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음성유도기와 스마트폰 간 주파수 차이로 인해 앱 활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성유도기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에서도 휴대장치용 주파수인 235.3MHz 사용을 허용했다.

지하터널 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TV 유류대역(TVWS)을 활용한 데이터 통신도 허용된다.

/김서현 기자

넷마블, 내달 신작 ‘솔: 인챈트’ 사전등록

참여 시 특별 보상 지급

넷마블은 신작 MMORPG ‘SOL: enchant(솔: 인챈트)’의 사전등록을 오는 내달 5일부터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솔: 인챈트’ 사전등록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 앱마켓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등록 참여 시 일정 기간 동안 수량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무한의 체력 회복제’를 비롯해 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보상을 지급한다.

‘솔: 인챈트’는 ‘신(神)’이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를 바탕으로 개발 중인 신작



넷마블은 신작 MMORPG ‘SOL: enchant(솔: 인챈트)’의 사전등록을 오는 내달 5일부터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넷마블

MMORPG로, ‘리니지M’ 개발진 주축의 신생 개발사 알트나인이 개발하고 넷마블이 퍼블리싱하는 2026년 상반기 출시 예정작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조정장 기회 삼는 동학개미, 삼성·하이닉스 매수 행렬

삼성 2.2조 하이닉스 3.8조 사들여
넌뛰는 코스피, AI·반도체 변동성 ↑
전문가들 “반도체 중심 성장 지속”

“실적이 워낙 좋으니 단기 조정을 거치더라도 오를 거예요. 삼성전자를 믿어요.”

15년 동안 삼성전자 한 종목만 15억원 어치 모아온 사업가 김모(70)씨 얘기다. 그는 실적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에도 1억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김씨는 “증시 조정기에 주가는 덜 떨어지고 꾸준히 이익도 나니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자에게도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2000만원어치 사줬다”고 했다. 그가 투자한 삼성전자의 덩치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자산가뿐이 아니다. 올해 동학개미(개인투자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수 행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2조2003억원, 3조8228억원어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개미(개인 투자자)’ 이미지.

치 순매수했다.

‘20만전자’와 ‘100만닉스’를 향한 동학개미의 짝사랑은 현실이 될까. 아니면 배신을 당하는 꼴까.

전문가들은 AI 시장을 고점 논란이 반복되더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주의 최근 주가 하락은 구조적 문제가 아닌 이익보다 더 빠르게 오른 주가의 ‘속도’에서 나타난 문제로, 단기 조정에도

칠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의 구조적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원 홍콩증권 연구원은 “AI 투자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투자 공급망에 포함되는 하드웨어 제공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아마존(2000억달러), 구글(최대 1850억달러) 등 하이퍼스케일러 4개사는 실적과 함께 2026년 투자 계획을 공개했는데, 총 합계는 약 6600억달러 수

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연말 시장 예상치(컨센서스) 대비 1000억달러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투자규모의 2배에 달한다.

이 연구원은 “대규모 AI투자가 집행될 경우 엔비디아, AMD는 물론 인텔, 마이크론 등 반도체 기업 전반의 호황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지난 주말 시장이 반전에 성공했다”며 “급증하는 투자에 대응하는 하드웨어 업체들의 경우 이례적인 호황으로 이어지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처럼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골드만삭스도 AI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일축시켰다. 젠슨 황 CEO는 “AI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7~8년간 이어질 것이다. AI에 대한 수요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피터 오펜하이머 골드만삭스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도 “지금 상황에서 AI 거품은 없다”며 “최근 불고 있는 AI 거품론과 관련해선 지금도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짚었다.

실적 전망도 장밋빛이다.

양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합산액은 40조 원에 달하며, 연간 기준 합산액은 90조원을 웃돈다. 기록적인 숫자이지만, 올해는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이 161조원, SK하이닉스는 13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욱 테크팁장은 “삼성전자는 그동안 동사의 할인 요소였던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부진과 D램 이익률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며 “메모리 모멘텀 클라이맥스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익은 아직 오롯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이 135조원, 1분기 영업이익이 25조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전 제품군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고 사실상 출하량 성장 없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젊을수록 해외투자… 세대별 투자전략 갈려

자본연 “해외 ETP 가진 20대 60%”
50대 국내 주식 비중 71.55% 차지

국내 개인투자자 가운데 젊은 세대일수록 국내 주식보다 해외 상장지수상품(ETP)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김민기 연구원이 발간한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투자 확대가 해외 개별주식보다는 ETF·ETN 등 해외 ‘ETP 투자’ 증가에 기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전체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보유금액은 약 5196만원이며 이 가운데 국내 주식 비중은 63.9%로 집계됐다.

다만 연령별로는 해외투자 성향이 뚜렷하게 갈렸다. 20대의 경우 전체 투자

금액 가운데 ETP를 포함한 해외 ETP 보유금액이 60.0%를 차지해 국내 주식 비중(30.8%)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30대 역시 해외 ETP 투자 비중이 45.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대(23.7%), 50대(16.7%), 60대(12.8%)로 갈수록 해외 ETP 비중은 낮아지는 대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실제로 20대는 일평균 보유금액(3492만원) 가운데 해외 ETP 비중이 60.02%(2096만원)로 가장 컸고, 국내 주식 비중은 30.82%(1076만원)에 그쳤다. 반면 50대는 전체 보유금액이 6036만원으로 더 크지만, 국내 주식 비중이 71.55%(4319만원)로 압도적이었고 해외 ETP 비중은 16.65%(1005만원)에 머물렀다. 즉 젊은층은 해외 상장지수상품 중심으로 투자금이 쏠린 반면, 중장년층은 국내 주식 중심의 투자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 투자자의 평균 보유 종목 수는 6.38개로 남성(5.5개)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분산투자 성향이 강했지만, 여성의 국내 주식 비중은 84.5%로 남성(81.6%)보다 높아 국내시장 중심의 투자 성향이 두드러졌다.

성과 측면에서는 해외 시장에 참여한 상당수 투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위험조정 성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관찰되긴 했으나, 그중 절반가량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강소현·김민기 연구원은 “국내외 자산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전체 성과는 동기간 주식시장 수익률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진했으며, 해외시장 참여 역시 일부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절반가량은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넥스트레이드, 출범 첫해 당기순익 205억

출퇴근길 거래 수요 급증 영향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첫해인 2025년 한 해 2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내며 흑자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전란 주요경영상황 공시를 통해 2025사업연도 잠정 영업실적을 공개했다.

영업수익이 644억원으로 집계됐고, 영업이익은 146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179억원과 205억원으로 전년도까지의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로 돌아섰다.

직전 사업연도 1238억원이었던 자산총계는 1508억원으로 증가했고, 자본총계도 1163억원에서 1367억원으로 증가

했다.

같은 기간 부채는 7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2025년 3월 영업개시 이후 영업수익이 발생했고, 마케팅 및 운영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복수경쟁 체제 전환을 목표로 작년 3월 문을 연 넥스트레이드는 급성장을 거듭 중이다.

당초 3년 내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출발했으나, 프리마켓(오전 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을 개설, 기존까지 6시간 30분이었던 주식 거래시간을 12시간으로 대폭 늘린 것이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코스피 불장이 본격화하면서 출퇴근길 주식거래 수요가 급증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 GX EU, 운용자산 80억달러 달성

유럽 진출 5년 만에 성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유럽 ETF 자회사 Global X Europe(GX EU)이 유럽 시장 진출 약 5년 만에 운용자산(AUM) 80억 달러를 돌파했다. 리테일 투자자 중심의 디지털 유통 전략과 원자재·테마형 ETF 라인업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유럽 ETF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GX EU의 1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80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1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럽 ETF 시장 진출

약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2025년 한 해 동안 운용자산은 214.6% 증가하며 유럽 ETF 운용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AUM 10억 달러 이상 운용사 기준), 최근 3년 동안 유럽 및 글로벌 ETF 시장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유럽 ETF 시장의 운용자산은 약 5030조원으로, 미국(약 2경 100조원)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GX EU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에서 전략총괄을 역임한 게아블룸버그를 공동 대표(Co-CEO)로 영입해 경영 및 전략 역량을 높였다.

/허정윤 기자

한국증권금융 홍콩법인 출범식 개최

한국증권금융은 10일 증권금융의 첫 해외 영업점인 홍콩법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대리), 홍콩거래소 및 홍콩소재 금융회사 등 약 30개 기관, 60여명의 현지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은 “지난 2024년 하반기에 개소한 홍콩사무소를 홍콩법인으로 전환했다”며 “홍콩법인을 통해 국내 증권사의 해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글로벌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KODEX 반도체 ETF’, 순자산 3조 돌파

삼성자산운용, 작년보다 96% 증가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반도체 ETF의 순자산이 3조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 1조 7135억원에서 약 95.6% 증가해 3조 3521억원을 기록했다.

KODEX 반도체는 2006년 상장된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49.1% 이상 편입해 국내 반도체 대표주의 주가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등 반도체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까지 편입, 한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 분산 투자한다.



KODEX 반도체는 연초 이후 44.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수익 성과에 힘입어 이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2286억원에 육박했다.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은 각각 27.9%, 54.9%, 139.5%, 169.8%로 장단기 수익률에서 모두 성과를 보였다.

/신하은 기자

KIAT, ‘5극3특’ 지역산업 맞춤 육성

민병주 원장 “기업지원 설계 때
초광역권 최대한 고려할 방침”

규제·인재·재정·금융·R&D
‘5중세트’ 포함 육성계획 수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현 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을 축으로 지역별 산업 생태계 맞춤 육성에 나선다. 기술개발, 인재양성, 금융지원까지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초광역권 중심으로 묶어 지역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극3특 기반 산업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지역 산업 환경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묶음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지원 사업 전반을 설계할 때 초광역권을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극3특은 서남·중부·대경·동남·수도권의 5대 권역과 강원·전북·제주의 3대 특별지역을 아우르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KIAT는 지역 기업 대상 기술개발(R&D) 지원 예산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시·도 단위 사업 구조를 5극3특 초광역권 체제로 재편한다.

그간 14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되던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초광역권 중심으로 통합되며, 예산도 2025년 512억원에서 2026년 841억원으로 64% 확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된다. 과제 기획 단계에서 지역 자율성은 높이고, 대형 사업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키운 것이 특징이다.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역에 투자하는 이전·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R&D 사업(42억원)도 새로 추진한다. 중견(후보)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월드클래스플러스, 상생형 협력 R&D사업도 지역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는 등 5극3특 기반으로 예산 배분을 조정한다.

특히 지역 소재 중견기업에 전체 예산의 최소 60%(150억원)를 배정해, 초광역권 산업 생태계의 ‘앵커 기업’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초광역권 내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사업도 전년 40억원에서 113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KIAT는 탄소중립 분야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재직자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7억원)을 신설하고, 국내 대학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100명을 지역 기업 인턴ship으로 연계하는 사업(30억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방 투자기업의 조기 가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14억원)도 추진된다. 재직자 대상 첨단산업 아카데미(180억원)는 교육 거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6곳을 추가 선정하는 특성화대학원(180억원)과 단기 집중 교육과정인 부트캠프(41개 추가 선정, 584억원)를 선정할 때도 5극3특 성장엔진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제조기업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보조금 사업(1000억원)과 기술개발 자금 융자(900억원)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 추진된다.

이을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은 철강·알루미늄·구리, 자동차 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한 이차보전 사업(100억원)도 1분기 중 시작된다. 특히 여수·포항·서산·광양 등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은 151억원으로, 전년(11억원) 대비 대폭 확대된다.

KIAT는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앙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인재·재정·금융·R&D를 아우르는 범부처 ‘5중 세트’를 포함한 성장엔진 육성계획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2조 투입

첨단전략산업·고부가치화 등 지원
소재개발 분야에 AI 첫 활용 계획도

산업통상부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9.6% 늘어난 1조2910억원을 투입한다. 철강·석유화학의 고부가 전환과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소재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연계를 핵심 축으로 한 투자다.

산업부는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11일 공고하고, 올해 총 1조2910억원(계속과제 1조1704억원, 신규과제 120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1454억원, 디스플레이 883억원, 이차전지 1257억원, 바이오 1112억원 등 첨단전략산업에 4706억원을 투입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 기계금속(3085억원), 자동차(902억원), 화학(1470억원)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 전환에는 8204억원을 배정했다. 우주·항공(694억원), 수소(245억원) 등 미래 유망산업 투자도 포함됐다.

이번 신규과제는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대

응 ▲소재 개발과 AI 연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철강·석유화학분야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초심도 시추환경용 초내부식 강관 소재, 초저온·고강도 특수강, 방산·발전용 핵심 구조부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석유화학분야에서는 이차전지용 초박막 폴리프로필렌(PP) 필름, 전장부품용 초고순도 PP 등 스펙셜티 화학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과제로는 65개 과제에 427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AI 반도체용 초고순도 구리(Cu) 소재, 피지컬 AI 디바이스용 유리기판 소재·부품, 제련 부산물을 활용한 희소금속 정련 기술 개발 등이 대상이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처음으로 소재 개발 분야에 AI를 활용하는 ‘소재 AI 연계 과제’를 도입한다. 공공연구소 소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가상공학 플랫폼과 연계해 특성 예측, 구조 최적화, 가상설계·시뮬레이션 등 AI 기반 디지털 소재 개발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유통·소비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산업부, 3년간 年 국비 471억 투입
국내 온라인 역직구 운영 역량 강화

정부가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과 역직구 플랫폼 구축을 동시에 지원해 K-소비재 수출 판로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매년 국비 471억원을 투입해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와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유통거점을 확보한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의 동반 진출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통관·인증·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재 기업

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매년 해외 진출 유통기업 8곳과 역직구 관련 기업 5곳을 선정해 해외 현지조사, 마케팅, 물류 등을 맞춤형으로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기업과 소비재 기업이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해 상호 ‘윈윈’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역직구 지원도 강화한다. 역직구 시장 규모는 2020년 11억9000만 달러에서 2024년 29억 달러로 143% 성장한 만큼, 국내 역직구 플랫폼의 현지화와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류 확산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K-소비재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역전기요금제도로 국가균형발전 기여

기후부, 올해 1분기 개편 추진 계획
기업 지방이동 유인하고 도움 제공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은 지난 9일 세종청사에서 언론 설명회를 갖고 “그동안 수도권에 인재가 많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수도권 근처에 머무르려고 했다”며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에서) 인재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으로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공론을 거쳐서 지역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해 소위 기업들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보려 한다”고 했다.

기후부는 올해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을 많이 이용하도록 발전량이 많은 낮 요금을 내리고 저녁과 밤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공기업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통폐합 관련해서는 4, 5월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이라고 했다. 두 세 개의 경로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게 기후부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중지를 약속했는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 시한과 일치한다”며 “공기업 영역에서 발전 5사를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지 용역이

발주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경로가 압축되면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12차 전기본에 담을 계획이다. 발전노조에서 ‘한 곳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발전 5사는 비슷비슷한 사업하고 있다”며 “약간의 경쟁이 필요할 지, (하나라)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게 효과적일지는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발전 5사가 각각 양수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양수발전을 전담하는 발전공기업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양수발전은 발전 5사가 할 수도 있고 한수원이 할 수도 있고 수자원공사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총량을 관리하는 것은 기후부가 총괄하면서 각자 용이하게 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예정

주 3일 이상 해당지역 실거주해야

주민등록 거주지에 매주 사흘 이상 실제 살아야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다. 특히 거주지가 농어촌이지만 외지에서 일하거나 대학을 다니는 경우, 기

본소득 수령을 위해선 이 같은 실거주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기

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됐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고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한다. 또 타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밀라노 동계올림픽서 ‘K-푸드’ 알린다

농식품부-aT, 시내 트램 래핑 광고
푸드마켓서 K-푸드 팝업 바 운영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K-푸드 알리기에 나섰다.

aT는 이달 28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 트램을 통해 래핑 광고를 진행한다. 김치와 비빔밥 등 대표 K-푸드 12종을 일러스트로 디자인했다. 또 QR 코드를 부착해 행사 정보와 온라인 구매 정보를 전하고 있다.

올림픽이 열리는 22일까지는 밀라노 중앙역 내 유명 푸드마켓인 메르카토 첼 트랄레에서 K-푸드 팝업 바를 운영한다. 현지 셰프 프랑코 부지즈넬리와 한국인 구선영 조리장이 협업해 ▲김치굴요리 ▲된장 크림 참치요리 ▲김치 참치



‘K-푸드’ 광고를 부착한 트램이 이탈리아 밀라노 시가지를 운행하고 있다. /aT

타르타르 등 한국 발효식품을 재해석한 퓨전 메뉴를 선보인다.

또 유명 바텐더 디에고 페라리가 소주와 복분자주를 베이스로 개발한 ‘코리안 마티니’ 등 창의적인 칵테일을 소개한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초저녁 식전주 문화인 ‘아페리티보’에 착안한 K-푸드 체형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한국 전통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신희

주최·제작 극단지우 Performance Group JIWO 협찬 yes24 사파게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부산시, 140여개 기관과 지역상품 우선구매로 경제 활성화

지역기업 판로 위축 문제 해결
구조적 한계 극복해 선순환 도모
지역 인재·건설자재 등 범위 확대

부산시는 10일 오전 11시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상생 연대를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6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부산지방조달청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부산 소재 공공기관과 16개 구·군, 대학·금융기관, 지역 경제단체 등 총 140여개 기관이 참여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을 약속했다.

시는 수도권 업체 선호와 외부 여건 악화로 지역 기업의 판로가 위축된 문



부산시가 총 140여개 기관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협약을 추진하고, 그동안 기술력 있는 지역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

할을 하고 민간이 이를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구매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단순 소모품 구매를 넘어 지역 인재 채용과 건설 자재, 전문 용역 등 경제 활동 전반에 '부산 지역 상품 우선구매' 원칙을 적용한다.

참여 기관들은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기업 거래 비중 확대 ▲구매 정보 투명 공유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 구체적 실천을 공동 추진한다.

또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원칙 ▲지역제한 경쟁입찰 사업 100% 지역업체 선정 ▲건설 하도급률을 기존 56.7%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해 지역인재 고용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단순 소모품 구매부터 인재 채용, 대형 건설 자재, 전문 용역까지 '부산 우선구매' 원칙을 전 영역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지역

상품 구매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여 2조원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구매 실적 점검 ▲우수 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 공 등 정책 환류 체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르노코리아를 비롯한 부산 지역 우수 기업과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총 20개의 홍보·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부산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실천 동력이 되고, 지역 상품 구매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이웃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경제 정책"이라며 "140개 기관의 결속과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특별한 위기에는 특별한 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상공회의소

해수부 이전 후 첫 공식 예방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과 회장단 16명은 9일 오후 4시 30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김성범 장관직무대행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북극항로추진본부장 등 해수부 주요 간부들도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자리를 옮긴 해수부와 지역 상공계의 첫 공식 만남이다. 부산상의는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정착을 축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이강덕 시장, 12년 시정 마무리

포항시는 지난 9일 민선 6·7·8기 동안 시정을 이끌어 온 이강덕 시장의 퇴임 행사를 열고 12년간의 시정을 마무리했다.

이강덕 시장은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기치로 세 차례에 걸쳐 시정을 이끌며 도시 전반의 변화와 성장을 추진해 왔다. 이날 행사는 그간의 시정 운영을 정리하고 전 직원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문화동 대강홀에서 열린 퇴임식에는 직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퇴임 기념 영상과 기념패·공로패 전달을 통해 12년간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도-경북문화관광공

경북 e누리 관광상품 판매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국내외 개별 여행객의 지역 관광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일부터 경북 e누리 관광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북 e누리 관광상품은 도내 22개 시·군의 유료 관광시설 입장권과 관광 숙박시설 숙박권, 카페와 체험시설 이용권 등 각종 관광상품 가운데 2개 이상을 결합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관광 패키지다.

판매 개시를 기념해 2월 27일까지 18일간 경북 e누리 관광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전 상품 30%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북=김진곤 기자

부산시, '만덕~센텀' 구간 30분 단축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
총연장 9.62km 왕복 4차로 터널
국내 첫 전 차량 통행 지하도로

부산시는 10일 자정을 기해 부산 내 부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일 오후 2시 만덕IC에서 개통식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 전재수·김미애·박성훈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교통위원장, 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도로는 북구 만덕동과 해운대구 재송동을 잇는 총연장 9.62km 왕복 4차로 터널로, 국내 첫 전차량 통행 가능 도심도 지하도로다. 지하 40m 이상 깊이에 건설돼 지상 교통과 완전히 분리된 새 교통축을 형성한다.

첨단환기·배수·화재안전시스템이 적용됐으며 7년간 공사 과정에서 지반 안정화, 초정밀 굴착 기술, 스마트 안전 모니터링 등 최신 공법이 동원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입구. /부산시

이 도로는 2001년 '부산시 내부순환도로망' 계획 수립 이후 25년 만에 마지막 구간을 완성하는 연결고리다.

개통으로 만덕에서 센텀까지 기존 41.8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11.3분으로 30분 이상 단축된다. 연간 통행 비용 648억원 절감, 생산 유발 효과 1조 2332억원, 고용 창출 9599명 등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개통으로 총렬대로와 수영강변대로의 만성적 정체가 완화되고, 교통 효율성 향상은 도심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 청년농에 최대 10년 스마트팜 임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사업 선정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사업에 상주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모두 갖춘 전국 유일의 지역이 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 교육부터 실증, 생산, 정착으로 이어지는 스마트농업 전 주기 인프라를 완성하게 됐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스마트농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생산·연계·가공 등 관련 산업을 집적화한 첨단 농업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구에는 시설 건립 인허가 간소화와 공유재산법 특례 적용 등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며, 수의계약, 20년 장기 임대, 연구시설 축조 등 파격적인 특례가 적용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스마트농업지구. /경북도

선정된 상주시는 낙동면 신상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 200억원을 투입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임대 가능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창업단지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매년 배출되는 50여 명의 수료생이 임대형 스마트팜을 거쳐 창업단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구축

남영양농협과 '맞손'

영양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영양농협(조합장 양봉철), 남영양농협(조합장 박명술)과 함께 농촌 기본소득 지역 상생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2026년 2월 말 지급 예정인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농촌 기본소득 사용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 협력사업을 공

동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사업은 농촌 기본소득 추진에 따른 사회적 기부 및 지역 환원 활동,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물품의 안정적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및 교류 확대 등이다.

영양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상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한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과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사천시, '녹도~신도' 잇는 생태탐방로 조성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착공

사천시가 녹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해상 생태탐방로 조성에 본격 나섰다.

사천시는 지난 9일 삼천포대교공원 일원에서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풍광을 품은 해상 생태탐방로 조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동식 사천시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지역 주요 인사, 관계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무사고 공사를 기원했다.

이번 사업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활용해 녹도와 신도를 연결하는 보행 중심 해상 연도교를 조성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186억원이 투입된다. 현수보도교 430m와 접속도로 252m를 포함해 총연장 682m, 폭 1.5~2.0m 규모로 만들어진다.

430m 길이의 현수보도교는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체험형 보행시설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전망이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줄 서던 ‘두쫘쿠’ 벌써 식었다… 디저트 유행 주기 ‘초단기화’

검색량 고점 뒤 17일 만에 반토막
크로플·탕후루보다 유행 더 짧아
오후에도 남고 구매 제한도 사라져
마트 3000원대 대체재 시중가 절반
재료 포장재 매물 늘고 원가 하락세

특정 디저트가 화제가 되는 순간부터 유행의 종말 신호가 동시에 감지되는 시대다. 신제품이 등장하자마자 전국으로 확산됐다가 순식간에 열기가 식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디저트 시장의 유행은 점점 더 짧고 가혹한 사이클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불과 수주 만에 소비자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유행에 조금만 늦게 합류해도 재고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짧아진 디저트 유행 주기

네이버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에 따르면 ‘두바이 쫘득 쿠키(두쫘쿠)’ 검색 빈도는 지난달 고점을 기록한 뒤 17일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유행한 크로플은 검색 빈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기까지 163일이 걸렸고, 2023년 인기를 끈 탕후루는 54일



ChatGPT에 의해 생성된 SNS 인증 소비 문화와 대기업의 합류에 디저트 유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고민에 빠진 모습.

이 소요됐다. 불과 몇 년 만에 디저트 유행의 지속 시간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같은 변화는 현장에서도 즉각 감지되고 있다. 한때 오픈런이 이어지던 유명 카페들에서는 오후 시간대에도 두쫘쿠가 진열대에 남아 있고, 저녁 시간대에도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개수 제한도 사라진 상태다.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35)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세 차례 두쫘쿠를 생산해 판매 시작 30분 만에 완판됐지만, 현재는 하루 한 번만 진열해 판매하고 있다”며 “확실히 지난달보다 손님이 줄어 아쉽다”고 말했다. 급등했던 피스타치오 원가 역시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유행 종료 신호가 아나나는 해석도 나온다.

◆ SNS 인증 소비후 관심 급감

중고 거래 플랫폼과 자영업자 커뮤니

티에는 두쫘쿠 재료나 화과자 케이스(두쫘쿠 포장 용기)를 정리하려는 판매 글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SNS를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 변화를 꼽는다. 맛이나 완성도보다는 쏘풍 콘텐츠를 위한 ‘경험·인증 소비’가 중심이 되면서, 한 번 체험이 끝나면 관심이 빠르게 이동한다는 설명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 제품 출시 역시 유행 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두바이 스타일 쫘득볼’과 ‘스모어 두바이 쫘득 쿠키’를 3000원대에 선보였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두쫘쿠 가격이 7000~1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 가격이다.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를 활용한 ‘두바이 스타일’ 간식도 쏟아지고 있다. 이마트24는 이달 두바이 스타일 크림빵, 초콜릿,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스타벅스는 ‘두바이 쫘득볼’에 이어 미국에서 출시한 두바이 초콜릿 음료 2종을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다. 신세계푸드도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베이커리에서 판매 중인 ‘두바이 스타일 초코 크루아상’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 부담은 자영업자의 몫?

이처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저렴한 대체재가 잇따르면서 두쫘쿠의 희소성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유행이 정점에 달했을 때 뒤늦게 메뉴를 도입하거나 창업에 나선 경우, 재고와 원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업주들은 “유행을 쫓아가기도 전에 끝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저트 시장 전반에서 이같은 ‘초고속 유행·초고속 소멸’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유통 채널이 가세하면 디저트 유행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지만, 동시에 희소성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유행 주기를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웰푸드, ‘월드콘’ 모델에 손흥민 발탁

23일 디지털 광고 공개 SNS로 송출
경품 이벤트 등 소비자 프로모션 확대

롯데웰푸드는 대표 아이스크림 ‘월드콘’의 브랜드 모델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을 발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델 발탁 소식과 함께 공개된 캠페인 사진에서 손흥민은 특유의 환한 미소로 청량한 매력을 발산한다. 월드콘의 시그니처 컬러가 연상되는 붉은색 축구 유니폼을 착용해 눈길을 끈다.

롯데웰푸드는 한국을 넘어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영향력과 지지치 않는 에너지가 브랜드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 오랜 시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월드콘의 꾸준함과 손흥민 선수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손흥민과 함께한 신규 디지털 광고 캠페인 영상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푸집한 경품을 증정하는 대규모 소비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며 본격



월드콘 앰배서더 손흥민.

/롯데웰푸드

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고 캠페인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매체를 통해 공개된다.

월드콘은 1986년 출시 이후 약 40년간 사랑받아온 ‘국민 아이스크림’이다. 출시 3년 차인 1988년부터 아이스크림 콘 시장 1위에 올랐고, 2025년에는 전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아이스크림 위에 땅콩 토핑과 초콜릿을 얹은 독창적인 구조는 업계에

서 아이스크림 콘의 바이블로 통한다.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도 유명하다. 월드콘은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하고, 월드클래스 선수를 브랜드 모델로 내세우는 등 역동적이고 활기찬 마케팅 프로모션을 전개해 왔다.

또, 품질 혁신과 친환경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제품 리뉴얼을 통해 우유와 바닐라 향의 함량을 기존 대비 2배가량 높여 풍미를 극대화했다. 특히 바닐라 향은 국제 비영리단체 ‘열대 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의 RA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친환경적 가치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RA 인증은 자연을 보호하고 농부와 산림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농법으로 재배된 농작물만 부여받을 수 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글로벌 팬들에게 사랑받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월드콘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국가대표급 브랜드와 월드클래스 선수가 만나 선보일 새로운 행보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샘표 ‘완두간장’, 미국 코스트코 진출

캘리포니아 코스트코 45개점 판매
콩 대신 완두 발효 알레르기 부담 낮춰

우리맛연구중심 샘표의 ‘완두간장’이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했다.

샘표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내 코스트코 45개 매장에서 ‘완두간장’을 판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완두간장’은 대두(콩) 대신 완두를 발효해 만든 간장으로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해외 소비자도 한국 간장의 깊은 풍미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제품이다.

이번 코스트코 입점은 샘표가 80년간 축적해 온 독보적인 콩 발효 기술과 철저한 해외 식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글로벌 제품이 미국 주류 유통망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샘표는 국내 간장 시장 1위에 안주하지 않고, 한식의

기반이 되는 콩 발효의 깊은 감칠맛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글로벌장 연두’, ‘유기농고추장’, ‘완두간장’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코스트코의 까다로운 입점 기준을 통과한 ‘완두간장’은 원료 선택부터 발효 조건까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설계한 간장이다. 완두 단백질의 특성에 맞춰 특허 받은 발효 미생물을 적용하는 등 발효·숙성의 최적 조건을 연구해, 깊은 감칠맛은 살리면서도 향미는 한층 부드럽게 완성했다. 또 ▲글루텐 프리(Gluten free) ▲비건(Vegan) ▲비유전자변형(Non-GMO)으로 글로벌푸드 트렌드에도 부합해, 주요 국제 식품 박람회인 독일의 ‘아누가(Anuga)’와 프랑스 ‘시알 파리(SIAL Paris)’ 등에서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설 귀성길 선물, 가볍게 들고 가요”

‘핸드캐리’ 선물세트 확대

롯데마트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 부담을 덜어줄 휴대성과 실용성을 갖춘 ‘핸드캐리(Hand-Carry)’형 선물세트를 대폭 확대해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설 임박 시기 매출 분석 결과, 저용량 과일이나 견과류 등 3만원 미만의 가벼운 상품 매출이 급증하는 점을 반영해 이번 기획을 준비했다. 실제로 지난 설 직전 일주일간 핸드캐리형 상품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한 바 있다.

과일 세트는 무게를 줄여 휴대성을 높였다. 지난 추석 인기를 끈 ‘정성담은 혼합과일’ 세트 중량을 기존 4kg에서 3kg으로 낮춰 3만9900원에 선보인다. 수산



롯데마트가 설 핸드캐리형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롯데마트

부문에서는 ‘국산 큰 문어 한마리 선물 세트’를 손잡이 보냉백과 함께 옐포인트 회원가 8만9600원에, ‘파타고니아 생연어 선물 세트’는 3만4900원에 준비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CJ프레시웨이, ‘푸드 솔루션 페어’ 개최

내달 18일 aT센터서 B2B 박람회

CJ프레시웨이가 내달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푸드 솔루션 페어 2026’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푸드 솔루션 페어’는 식자재 유통 및 푸드서비스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솔루션을 소개하는 B2B 전문 식품 박람회다.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들어가는 푸드 솔루션 생태계’를 주제로 하며 외식·급식 사업자, 제조사,

협력사 등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 과제와 해법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업 기회를 논의하는 파트너십 플랫폼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18일은 사전 초청받은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19일은 일반 관람객 대상으로 운영된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박람회에서 미래 성장동력인 온라인 플랫폼과 키친리스를 통해 외식·급식 사업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온라인 플랫폼’ 부

스에서는 온라인 식자재 유통 플랫폼 기반 간편 주문 시스템과 인기 상품 등을 선보이며, ‘키친리스’ 부스에서는 간편식 코너와 이동형 F&B 서비스 브랜드 등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외식·급식 업장 맞춤형 솔루션과 조리 효율화 상품, B2B 소스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조리 효율화 상품, B2B 소스 등을 활용한 메뉴 시연과 사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소개하는 강연 콘텐츠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국내는 좁다… K-제약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기술력 증명

파인메딕스, 日 시술기구시장 진출
한미약품, 지혈제 해외판권 확보
HLB셀, 자체 개발 상품 상업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의료기기를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면서 시술 기구, 수술용 치료 소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산 의료기기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산업 내 존재감도 커지는 양상이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소화기 내시경 시술기구 전문 기업 파인메딕스는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파인메딕스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ESD) 절개도 ‘클리어컷 나이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일본 시장에서 국산 ESD 시술기구가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인메딕스의 클리어컷 나이프는 초기 암 병변을 제거하는 ESD 시술에 사용하는 절개도다. 총 7종으로 구성돼 시술 환경과 병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팁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강화된 절연 기



파인메딕스 전경.

/파인메딕스

능으로 시술 효율성과 안전성까지 높였다.

파인메딕스는 이번 허가를 기점으로 일본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일본 시장 내 기존 제품 대비 15~20% 수준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갖춰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품군도 확장한다. 내시경용 지혈제 ‘클리어 헤모그라스프’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을 마쳐 올해 상반기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성장 3년 차에 접어든 파

인메딕스는 내시경 시술 기구의 국산화를 이뤄냄과 동시에 일본, 유럽, 미국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개 제품군에서 23개 제품을 직접 개발해 전 세계 51개 국가에 공급하고 있다.

전성우 파인메딕스 대표는 “전 세계 ESD 시술의 표준을 선도해 왔던 일본에서 국산 ESD 나이프로 첫 허가를 획득했다는 것은 우리 제품의 임상적 가치와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쾌거”라고 전했다.

전통 제약회사인 한미약품그룹도 의료기기 부문에서 협업 구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키우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의료기기 사업에서 주력 제품들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유착방지제 ‘가딕스’는 2025년 23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혈제 ‘엑티클랏’ 매출은 전년 대비 77% 급증해 81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또 흡수성 분말형 보조지혈제 ‘우즈픽스’, 폴록사머 기반 흡수성 뼈 지혈제 ‘타블로 왁스’ 등 수술용 치료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엑티클랏, 우즈픽스, 타블로 왁스 등은 국내 바이오서지리 전문기업 테라시온바이오메디칼이 개발하고 한미사이언스가 해외 판매권을 확보한 수술용 치료 재료다.

한미사이언스는 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헬스케어 부문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제품군을 확대 구축해 의료기기과 헬스케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LB그룹 내 생명과학 자회사 HLB셀도 자체 개발한 제품을 상업화하며 기업 영향력을 강화한다.

HLB셀의 분말형 수술용 지혈제 ‘블리픽스’는 보건복지부 지정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외과 수술 과정에서 1차 지혈 이후 발생하는 삼출성 출혈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개발됐다. 히알루론산 등의 생체 고분자를 주성분으로 하며, 출혈 부위에 도포 시 수분과 반응해 빠르고 강한 점착성 겔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블리픽스는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임상3상에 해당하는 확정 임상시험에서 기존 지혈제 대비 동등 이상의 효과를 입증, ‘비열등성’을 확인하며 임상에 성공한 데 따른 것이다.

HLB셀 측은 “블리픽스의 허가 및 출시 준비를 지속하는 한편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향후 적응증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램시마, 2년 연속 ‘글로벌 블록버스터’ 입증

셀트리온, 작년에 이어 연매출 1조
액상 제형 출시로 재도약 노력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가 지난해에도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2년 연속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에 올랐다. 올해는 인플릭시맙 의약품 중 최초로 램시마 ‘액상 제형’을 새롭게 출시하며 또 한번의 도약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10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램시마는 지난해 글로벌 전역에서 약 1조49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글로벌 전역에서의 안정적인 처방세 및 유럽 인플릭시맙 시장 확대로 1조원 매출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특히, 유럽 인플릭시맙 시장 자체가 확대된 점이 매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램시마는 유럽 주요 5개국(EU5)인 영국에서 62%, 스페인 49%, 독일 48% 등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아일랜드 75%, 오스트



셀트리온 램시마.

리아 64% 등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달성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원내 처방보다 장소에 상관없이 간편히 자가투여가 가능한 피하주사(SC) 제형의 수요가 늘면서 ‘램시마SC’ 처방이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셀트리온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램시마 액상 제형을 통해 또다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액상 제형의 경우 기존 동결건조 제형 대비 조제 시간은 50% 이상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인건비·소품비 등 비용은

20%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 동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관 장치 등이 필요 없어 저장 공간 및 보관료 등에서도 최대 7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셀트리온은 이달 말 북유럽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램시마 액상 제형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램시마SC에 대한 기대도 높다. 램시마SC는 지난 한 해 동안 글로벌 전역에서 약 8394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6007억원) 대비 약 40% 가까이 증가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는 올해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램시마에 이어 국내 2호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램시마SC는 지난해 3분기 기준 EU5에서 처음으로 30%가 넘는 점유율을 달성하며 판매고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짐펜트라’(램시마SC 미국 제품명) 역시 판매가 시작된 2024년 3월 이후 월평균 31%의 처방 성장률을 기록하며 주간 처방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문셀엘씨주, 간이식 환자 생존율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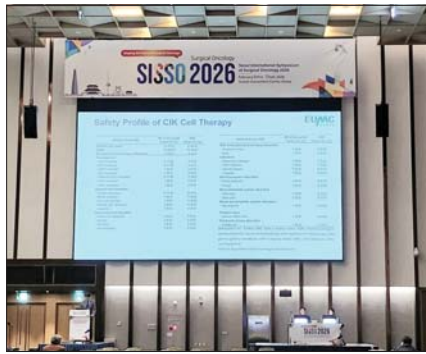
지씨셀, 심포지엄서 연구결과 발표

지씨셀은 간세포암 치료제를 위해 간이식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주의 연구 결과를 지난 7일 열린 ‘2026 서울국제외과종양학 심포지엄(SISSO)’에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밀란 기준(Milan Criteria)을 초과한 간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이문셀엘씨주를 투여한 환자군과 별도의 추가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군의 치료 성과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이문셀엘씨주를 투여한 환자군의 2년 간 재발 없는 생존율은 87.5%로, 대조군(62.9%) 대비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생존율 역시 치료군은 생존율 100%를 기록해, 대조군(81.5%)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면역억



지씨셀은 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주의 연구 결과를 지난 7일 열린 ‘2026 서울국제외과종양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제제를 병용한 환경에서도, 이식 거부반응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간이식 환자의 경우 면역치료가 장기 거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치료군과 대조군 간 거부 반응 발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문셀엘씨주가 항암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면역 반응의 균형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세경 기자

HLB이노, 반도체 수요 확대에 매출 27% ↑

공정 자동화 투자 등 역량 강화

HLB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약 322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27% 증가한 잠정 실적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HLB이노베이션은 반도체 칩을 고정하고 전기 신호를 외부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주력으로 성장해 왔으며 국내 최초로 고정적 반도체 패키지에 사용되는 ‘QFP(워

드 플랫 패키지) 리드 프레임’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일반 반도체용, 전기차용, 파워 모듈, 프리몰드 리드 프레임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과 안정적인 거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HLB이노베이션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화에 따른 수요 확대에 대응해 설비 증설과 자동 검사 시스템 도입 등 공정 자동화 투자를 지속,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센서용·프리몰드 제품과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파워모듈 분야를 강화하고 국제 인증(IATF 16949 등)을 바탕으로 전장 부문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확대에 맞춰 DDR·낸드플래시용 컨택트핀 제품을 개발·양산하며 차세대 사업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복안이다. 자동차·전장 및 반도체 분야 전반에서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을 내다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헤라 ‘UV 프로텍터’, 열노화 기능 담았다

아모레퍼시픽, 신규 제품에 적용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브랜드 헤라가 선펜어 제품군 ‘UV 프로텍터’를 재단장하며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헤라는 자외선과 광노화는 물론,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노화까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집약해 고급 선펜어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헤라가 구축한 ‘UV-R PRO’ 기술은 UVA로 인해 피부 속에서 증가하는 산화스트레스에 효과를 갖춰 항노화 기능을 구현한다. 해당 기술은 신규 제

품인 UV 프로텍터 톤업 라벤더, UV 프로텍터 CC 내추럴 등에 적용됐다.

‘UV 프로텍터 톤업 라벤더’는 노란기와 붉은기를 동시에 보정해 깨끗하고 맑은 피부톤을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은한 라벤더 빛이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돼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또렷한 톤업 효과로 투명하고 정돈된 피부 표현을 완성한다.

함께 출시된 ‘UV 프로텍터 CC’는 마치 원래부터 피부가 좋은 듯 자연스러운 광채와 균일한 피부결 표현을 구현한다.

/이청하 기자

LOTTERIA™

치킨버거의 근본을 세우다!

파이어핫

단 품 6,900원

세트 8,900원

그릭랜치

단 품 6,900원

세트 8,900원

두툼하다
두툼해!

짐작맨'S PICK

깎 래 야 깎 수 없는 무적의 치킨 버거

통다리 크리스파 치킨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2026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15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 조사에서 ▲서비스 신뢰도 ▲서비스 혁신성 ▲고객 만족 활동 ▲사회 공헌 등 12개 조사 항목 모두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설 맞이 복조리 걸기 행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0일 설 맞이 복조리를 국내 주요 사업장에 걸쳐 고객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각사 탑승 수속 카운터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아시아나항공 본사 등 국내 주요 사업장 총 8곳에 복조리를 걸었다.

/대한항공



NHN, 성남 관내 노인복지관에 AI 바둑로봇 기부

NHN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디지털 돌봄 지원의 일환으로 성남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6곳에 인공지능(AI) 바둑로봇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왼쪽부터) NHN 김재환 정책지원실장과 성남시 김순신 복지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N



BGF리테일-경찰청, '시민영웅 시상식' 개최

BGF리테일이 경찰청과 함께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BGF 사옥에서 '2026년 시민영웅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아동안전 시민영웅'으로는 박한균 씨와 심우철 씨가, 'CU 엔젤스 특별 시상'은 권대근 CU경주초당길점 점주가 선정됐다.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맨 오른쪽)가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GF리테일



중소사랑나눔재단, '희망드림장학금' 전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예체능·인문계·이공계 분야 장학생 총 8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2026 희망드림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민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주요기업 설 상생 행보

한화그룹, 협력사 대금 1790억 조기지급

김승연 회장 '함께 멀리' 철학 실천 주요 계열사 지역사회 나눔 활동

한화그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약 1790억원의 협력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계열사별 지급 규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45억원, 한화오션 553억원, 한화 건설부문 117억원 등이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 추석 명절마다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작년 설에는 약 170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협력사의 근로자도 한화의 식구이고, 지역사회도 한화의 사업 터전"이라면서 "멀리 잘 가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라고 한화

그룹의 상생경영 원칙인 '함께 멀리'의 철학을 강조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들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여수, 보은 등의 사업장에서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에게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한다. 한화오션과 한화솔루션도 거제, 울산, 여수의 사업장에서 지역민, 고객사 직원 및 가족 등과 함께 명절음식 나눔 등 후원 행사와 환경정화 행사를 개최한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SKT, 네트워크 유지·보수 업체 등 재정부담 완화

1120억 규모 대금 조기지급

SK텔레콤(대표 유영상·사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약 112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네트워크 공사·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수행하는 500여 협력사와 250여 유통망으로, 대금은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3주 앞당겨 설 연휴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중소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왔다. '동반성장펀드'는 회사가 출연한 예치금의 이자를 활용해 협력사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우수 협력사의 경우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평균 5.2%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대금지급바로' 제도는 거래 대

금을 지출 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이라면 별도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금 규모에도 제한이 없어 협력사의 자금 운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 채용 및 교육 지원,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 등 중소파트너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아모레퍼시픽그룹, 400여개 협력사 자금난 해소 지원

280억 규모 거래대금 순차지급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280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협력사에 조기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9개 계열사에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400여개 협력사다. 오는 20일까지 지



금 예정이던 280억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자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 대

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대표(사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예정 지급일보다 많게는 10일 빨리 납품 대금을 지급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상생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오뚜기, 협력사에 현금 138억 분다

하도급대금 지급 50여일 앞당겨

오뚜기가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약 13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은 하도급 업체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6곳이다. 오뚜기는 당초 지급일보다 약 50여일 앞당겨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명절마다 협력사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 지급하여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대리점 대상으로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협력사의 품질 역량 및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예방 활동은 물론, ESG 진단 및 환경 분야 지표 강화 등을 통한 ESG 건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홈앤쇼핑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홈앤쇼핑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선다.

10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조기 지급액 규모는 총 250억원 가량으로 1000여개 협력사는 당초 예정일보다 앞당겨 대금을 수령한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안정이 곧 홈앤쇼핑 본연의 가치이자 정체성"이라며 "앞으로도 파트너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도담샌드'

/현대위아

현대위아 “‘도담샌드’ 만나보세요”

경남 농산물 활용 먹거리 선봬

현대위아가 경상남도의 농가와 함께 지역 먹거리를 선보인다.

현대위아는 경남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샌드 쿠키인 '도담샌드'를 10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도담샌드는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경남도청, 지역 농가, 경남도민과 함께 도담샌드의 기획에서부터 재료 선정, 최종 완성과 마케팅까지 함께 준비했다. 아울러 멸종위기종인 담비를 모티브로 한 현대위아의 마스코트 '도담이'를 활용, 친근한 디자인과 함께 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도담샌드에 담았다.

현대위아는 도담샌드 판매로 생긴 수익을 '조록숲 조성'을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담비 등 지역의 멸종위기 동물이 살 환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GS칼텍스 ‘존경받는 기업’ 조사 뉴에너지 부문 1위 선정

GS칼텍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뉴에너지 부문 1위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수소, CCS,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무탄소 스팀 및 재생 에너지, 바이오 연료 등 저탄소 신사업을 확대하며 에너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무탄소 스팀 도입과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통해 공정 전반의 탄소 배출 저감에 나서고 있으며, 글로벌 연료 시장 환경에 맞춰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디젤 등 바이오 연료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은 "저탄소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100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부음

▲최봉조씨 별세, 이종수(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이종영·이현주·이연주씨 모친상, 김정인·오선아씨 시모상, 김홍창·윤문수씨 장모상 = 9일 오후 10시 30분, 영남대의료원 장례식장 특301호실, 발인 12일. 053-620-4670
▲김은주씨 별세, 김향순·김수덕·김용건(선교사)·김수정·김수경씨 모친상, 홍태의·최승권·신형호(LSE 부장)·김영환(오피스넷 본부장)씨 장모상, 정선희씨 시모상 = 10일 0시 50분,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2일. 031-218-6560

GEL PEN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돌봄통합지원법 안착을 위한 과제



전 용 호 교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집과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돌봄을 추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바야흐로 본격적인 시행의 닳을 올리고 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이 법안의 취지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이나 인력 확충을 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성숙한 민관협력'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본질적으로 철저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다. 서울 강남의 도심형 독거노인과 전남 해남의 농촌형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결코 같을 수 없다. 대도시와 농어촌, 산업단지와 주거밀집지역은 인구 구조부터 의료 접근성까지 판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지자체가 지역 고유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때 비로소 제도는 생명력

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자치 역량과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앙의 권한 이양과 지방의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중앙 부처는 지방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예산 배분과 사업 승인, 그리고 성과 평가 등을 수단으로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정 자원을 근거로 제시되는 각종 세부 지침들은 지자체의 운신의 폭을 좁힐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세 또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미루는 이른바 ‘핑퐁 게임’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모델을 고민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달라”고 외치는 현상은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중앙의 하달만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도적인 의지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수직적 관리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그간 관(官)은 재정과 지도·감독권을 독점하며 민간 공급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 즉 '갑(甲)'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합돌봄은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수할 수 없는 과제다. 요양기관, 병원, 복지관, 사회적 경제 조직은 물론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공급 주체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제 공무원들은 권한과 권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공급자들과 우호적이고 신뢰 깊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민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네트워킹 리더십'을 발휘해야 통합돌봄의 실적을 도출할 수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다양한 현장의 공급 주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독려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 관(官)이 가진 권한을 민(民)과 함께 나누고 소통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공공이 먼저 손을 내밀고 민간과 수평적으로 협력할 때, 돌봄통합지원법은 비로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시장을 설득할 시간



기지 수첩

차 현 정
〈산업부〉

스마트폰 시장의 승부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에서 얼마나 확실한 존재감을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은 처음으로 400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매출도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하량 증가율은 5%에 머물렀으나 소비자들의 고가 모델 선택 비중 확대에 따라 평균판매가격이 오르며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운 것이다.

기술 평가만 놓고 보면 최근 몇 년간 인

공지능(AI) 경쟁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앞섰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생성형 AI 도입 속도도 빨랐고 기기 내 기능 확장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을 보면 이야기는 다소 달라진다.

애플의 평균판매가 가격은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어섰고 매출 점유율 역시 크게 확대됐다. 기술 경쟁의 속도와 시장의 선택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삼성은 스마트폰 출하량을 늘렸으나 보급형 비중 확대 속에서 평균판매가격은 오히려 낮아졌다. 반면 애플은 고가 모델 중심 전략으로 단가를 끌어올렸다.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수익 구조는 확연히 달랐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가격을 올려도 선택받는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올해는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애플의 첫 폴더블폰 참전이다. 그동안 폴더블 시장은 삼성이 주도자였다. 그러나 애플이 가세하는 순간 폴더블폰은 프리미엄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재정의 될 것이다. 시장의 눈높이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기술적 우위는 분명 중요하다. 시장을 여는 힘도 기술에서 나온다. 그러나 소비자를 얼마나 설득하느냐 또한 관문이다. AI도, 폴더블도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먼저 구현했느냐가 아니라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되는 가치로 이어지느냐다. 제품 가격이 높아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완성도와 경험을 보여줄 때 기술은 비로소 시장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hyeon@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 퍼즐과 재미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김상회의 四季

이대도강, 버릴 것은



이대도강은 36계 병법 가운데 열한 번째 전략으로 자두나무가 복숭아 나무를 대신해서 말라 죽는다는 뜻이다. 글자 자체만 보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한다는 의미로 냉정한 얘기처럼 보인다. 의미는 무작정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니, 전체를 살리기 위해 일부를 내려놓는 선택 그리고 지금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는 판단에 관한 전략이다. 이대도강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략이지만, 일반 사람들의 현실적인 생활과도 깊이 닿아 있다. 누구든지 살아가며 모든 것을 동시에 지킬 수 없다. 체력 시간 인간관계 업무 사랑 돈 권력 등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을지 매 순간 결정해야 한다. 팔자학은 이런 점에서 이대도강을 이해하는 데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사주에서 오행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본다. 오행이 고르게 강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데 가장 필요한 기운인 용신이 전락의 복숭아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기운을 돋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존재이다. 용신을 살리기 위해 어떤 기운을 내려놓을 것인지 선택하는 게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대도강의 방식이다. 이대도강은 운의 흐름에서도 나타난다. 인생을 대운과 세운으로 나누는데 대운은 10년 단위의 큰 흐름이고, 세운은 매년 바뀌는 작은 흐름이다. 어떤 대운에서는 사회적 성취가 잘 풀리지만, 인간관계나 건강은 나빠질 수 있다. 이때 무엇을 희생하는 게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이대도강 전략과 사주학은 당장의 손해가 오히려 더 큰 것을 살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자두나무이고, 무엇이 복숭아나무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div>  <div>메트로미디어</div> </div>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5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중·고교 시험 서·논술형 늘리고 AI 채점 도입

정답찾기 아닌 사고력 중시 평가로

서울교육청, 학생평가 내실화
학교 맞춤형 컨설팅 확대하고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정답을 고르는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 과정과 성장을 살피는 평가로의 전환이 본격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AI 채점 지원 도입 등을 담은 ‘2026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성취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정답 확인을 넘어 학생의 사고력과 배움의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평가 ▲공정하고 신뢰로운 평가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평가 ▲미래형 평가체제 기반 조성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성취평가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 추진 로드맵〉			
구분	1단계(2025년)	2단계(2026년)	3단계(2027년)
	시범 운영(66교)	시범 운영 확대(120교)	전체 학교 확산
주요 내용	AI 자동 채점시스템 개발· AI 학습용 채점데이터 구축	AI 자동채점 시스템 고도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속	서비스 상용화·시스템 고도화
	◆서·논술형평가 플랫폼 구축 ◆AI 채점·피드백 모델 개발	◆AI 자동채점 모델 기능 개선 -손글씨 인식 기능 등	모니터링·기능 개선
관련 사업	◆AI 논술형평가 실천학교 운영 ◆논술형평가 연수 모듈 개발	◆AI 논술형평가 실천학교 확대 ◆논술형평가 연수 확대	◆AI 시스템 활용 전면 확대 ◆논술형평가 연수 확대 지속 ◆찾아가는 현장지원단 운영 확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자료 개발과 연수,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한다. 수행평가는 단발성 과제가 아닌 학습 전 과정을 살피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서·논술형 평가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서울시교육청은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시스템 ‘채움AI’를 고도화하고, AI 서·논술형 평가 실천학교를 지난해 66개교에서 2026년 1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의 채점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고등학교 성취평가 모니

터링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연계한 점점 체계를 마련한다.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평가 설계와 운영 과정의 신뢰성도 높인다.

교원 전문성 지원을 위해 학생평가지원단을 확대하고, 성취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중심의 연수를 강화한다. 또한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해 성취평가 질 관리와 서·논술형 평가 지원, 교원 역량 강화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형 학생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폐원위기 어린이집 786개소에 106억 투입

서울시, 동행어린이집 지정

서울시가 폐원 위기 어린이집 786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의 경영 컨설팅,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중심의 보육 안전망도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동행어린이집’을 기존 699개소에서 786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연간 총 106억원의 예산(시비)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동행어린이집’ 사업은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선별해 2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돌봄 기반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 사업 첫해인 2024년 52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699개소까지 지원을 확대한 결과, 폐원 어린이집 수가 2023년 337개소에서 2025년 276개소로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올해 지원 대상을 786개소로 늘리고 사업 내용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지정 대상은 정원충족률 70% 미만 이면서 시설 간 거리가 200미터 이상이거나, 정원충족률 60% 미만이면서 정원 50인 미만인 어린이집이다. 폐원 시 지역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

올해는 위기도 평가를 도입해 위험도가 높은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우선 제공하고, 컨설팅이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심화 컨설팅’을 새롭게 실시한다.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도 우선 지원한다.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1세반 월 51만5000원, 2세반 월 42만6000원, 3세반 월 165만원을 지원하며, 보육교사 지원 요건을 영아반 2개 반 이상에서 1개 반 이상으로 완화했다.

환경개선비는 지난해 40개소에서 올해 51개소로 늘어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비 보조사업과 연계해 2000만~4000만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창업 전주기 맞춤 지원 늘린다

혁신 스타트업 집중 육성

고양시가 혁신 창업기업 발굴에서 성장, 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선순환 구조 구축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역 내 유망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창업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과 투자 연계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양시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투자자 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창업기업 발굴·육성·성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창업지원 운영 방향은 혁신 스타트

업 집중 육성과 창업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혁신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창업오디션 고양 IR데이’를 개최하고,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28청춘창업소와 한국항공대,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해 지역 창업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도 한층 촘촘해진다. 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제품 개발과 생산, 판로 개척,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시민 참여형 판로 지원 사업인 ‘고양 스타트업 팝업 스토어’ 운영을 통해 시장 진입 기회도 확대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국가장학금 5조 확대… 제도 사각지대 해소

교육부, 맞춤형 국장 지원 기본계획
동일대학 재입학시 수혜 제한 완화

교육부가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규모를 5조1161억원으로 늘리고, 동일대학 재입학 시 수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우수장학 확대에 나선다.

교육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다.

내년도 지원 규모는 국가장학금 4조 3670억원, 근로장학금 5738억원, 우수장학금 578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교육부

979억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원 등 총 5조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1354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 개선이다. 그동안은 대학 졸업 후 동일 대학에 다시 신·편입

학할 경우 학교 학제 기준 한도가 우선 적용돼 개인별 수혜 한도가 남아 있어도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인별 한도인 8회 범위 안에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인재 지원도 확대된다.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은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의 학비와 체재비 지원 한도는 연 6만달러에서 7만달러로 상향된다.

근로장학 분야에서는 지원 대상이 16만1000명에서 16만5000명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지원 단가가 현실화된다.

/이현진 기자

수원시 ‘새빛신문고’, 44개 동 집중 홍보

현장 중심 민원 해결 모델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장 중심 민원 해결 모델 ‘새빛신문고(베테랑이 간다)’를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44개 동을

순회하며 집중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활동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베테랑 공무원이 각 동의 통장회의를 방문해 새빛신문고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실제 민원 해결 사례를 공유한다. 통장들의 질의응답 시

간도 마련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9일 세류3동 통장회의를 시작으로 4월까지 모든 44개 동을 방문할 계획이다.

‘새빛신문고(베테랑이 간다)’는 20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진 베테랑 팀장들이 매주 수요일 각 구청을 찾아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수원시만의 민원 상담 서비스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평가
▲영국도 이스라엘 내각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 결정에 비난 성명

/사진 뉴스스

▲“가자 시티 수도공급 재개에도 극심한 물부족 계속”
▲美, 방글라데시와 무역 합의…상호 관세 19%, 의류는 0%

▲엡스타머, 엡스타인 여파 사퇴 거부…내각 장관들 연대
▲호사가 유지 “자민당 압승 뒤 한일 관계, ‘다케시마의 날’이 관건”



두쫘쿤 벌써 식었나
디저트 유행
초단기화
니



Life

K-제약바이오
소부장 기술력
글로벌 성과
L2



“27년 주택관리 노하우로 전국 최고 ‘주거서비스’ 만들 것”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조 만 현 동우씨엠 회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전문기업인 동우씨엠이 ‘수도권 공략’에 나선다. 1999년 창립 이후 영남권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동우씨엠은 지난해 코엑스 전시회에 이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아파트 건물관리산업전’을 계기로 수도권 주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현 동우씨엠 회장은 10일 “공동주택 단지 수 자체가 수도권 일대에 압도적으로 많고 주택 공급도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 감소로 광역시권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며 “특히 대구는 주택 공급 과잉 상태로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영남권 기반 공동주택 관리 기업 운영
광역시 주택공급 둔화, 인구감소 등
시장 정체 국면에 수도권 진출 나서
보수·안전 등 준공 후 ‘사후관리’ 특화**

◆ “수도권으로 사업 확장”

조 회장은 “지속적인 경영 성장을 위해 더 큰 시장에 안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우씨엠의 핵심 경쟁력은 ‘사후 관리’에 특화된 사업 구조다. 그는 “건설산업은 대부분 시공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준공 이후의 관리 영역은 상대적으로 전문화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동우씨엠은 관리 면허 등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의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 공사 등에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와 점검이 대표적이다.

조 회장은 “안전진단과 정밀점검까지 수행하며 관리 수준을 끌어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성장의 중심에는 종합주거서비스 플랫폼 ‘세이버스온’이 있다. 세이버스온은 관리사무소 기능을 모바일로 옮긴 ‘스마트



조만현 동우씨엠 대표이사 회장.

모바일 관리사무소’다. 출입 예약 관리와 주민 투표, 소방점검 등 관리사무소의 핵심 기능을 앱 하나에 담았다.

필요한 주택 관리 물품과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구독형 커머스 기능도 탑재했다.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물 형태다.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분야에서는 3D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공 전 디자인을 미리 보여주는 등 새로운 기술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동우씨엠은 위탁관리 계약 단지 중심인 서비스의 확장도 예고했다.

조 회장은 “올해 4분기부터 모든 아파트와 주택으로 대상을 넓힌다”며 “별도 자회사 형태의 스타트업을 통해 투자 유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택관리 자체 플랫폼 ‘세이버스온’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아파트 건물관리산업전’에 참가한 동우씨엠은 최신 정보와 기술을 주고 받았다. 위탁관리업체부터 화재경보·주차관리 시스템까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보수 기술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위탁관리회사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시장 한복판에 부스를 마련한 동우씨엠

은 전시 공간의 뒷배경을 프롭테크 패키지 설명으로 채웠다.

프롭테크 부서를 담당하는 김광용 전무이사는 현장에서 “주택관리회사 대부분은 외부 소프트웨어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며 “관리 주체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자체 플랫폼은 ‘세이버스온’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커머스 기능은 공동주택·시설 관리에 특화된 제품군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김 전무는 “일반 온라인 쇼핑물에는 전기 변압기 수리 처럼 전문적인 관리용 공구나 자재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세이버스온은 다양한 주택 관리 물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B2B(기업 간 거래) 중심에서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영역의 서비스를 더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

이 같은 사업 확장은 위탁관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김 전무는 “입주민 정서상 관리비와 위탁수수료 인상은 어렵기 때문에, 수익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 공급에서 관리까지

아파트 입주민과 가장 오랜 시간 맞닿아 있으며 주거의 질을 좌우하는 영역은 ‘관

리’ 영역이다. 그럼에도 관리산업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왔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급과 분양 중심 논의에서 한 발 나아가 관리 산업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감지됐다.

**종합주거서비스 앱 ‘세이버스온’ 운영
관리사무소, 구독형 커머스 기능까지
주택관리용품 구매 B2C 서비스 확장
위탁관리 넘어 종합주거서비스 구축**

이번 산업전에서 만난 김영삼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처장은 “공동주택관리산업이 상당한 산업 규모를 갖췄음에도 제도과 책임 구조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주체의 역할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은 위탁관리사 소속 직원인 주택관리소장에게 별도의 의무를 또 부과하고 있다”며 “실질적 권한 없이 책임만 이중으로 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포괄적 위임 규정에 따라 아파트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관리주체가 감독 책임을 지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주택 정책이 공급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관리에 실패하면 서울 전체가 거대한 노후 주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동우씨엠 조만현 회장 역시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직을 지내며 구조적 한계를 체감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현 대표가 동우씨엠에서 그리는 그림은 단순한 위탁관리 기업을 넘어선다.

그는 “주택관리, 시공·시행, 유지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국민 주거서비스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관리사무소를 플랫폼으로 확장해 입주민과 일반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 만드는 것이 동우씨엠의 장기 비전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조만현 회장(오른쪽 세번째)과 동우씨엠 직원들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아파트건물관리산업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우씨엠



‘2026 아파트 건물관리산업전’ 한국주택관리협회부스에서 위탁관리업 관계자들이 공동주택 관리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프로야구 역대 최초 10개 구단 모두 등록 선수 60명 넘어
▲‘다저스 전설’ 커쇼, WBC 이후 MLB 해설위원 데뷔
/사진 뉴스스

▲여자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명단 발표…항공 비즈니스석 지원 확정
▲프리시즌 연속 결장에도 부상은 아니다…새 시즌 앞둔 손흥민

▲스페인 FC바르셀로나 라포르타 회장, 재선 위해 사퇴
▲한국프로축구연맹, 2026년 K리그 유스 에디터 모집